

2016 충북사회복지 조사연구 보고서

충청북도 사회복지수준 분석

Analysis on the Level of Social Welfare in Chungcheongbuk-Do
among the National Local Governments

책임연구 | 나동석(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본 보고서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제 출 문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 충청북도 사회복지 수준 분석 』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
로 제출합니다.

2016. 12. 23.

연구자 : 나 동 석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16 조사연구사업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연구내용	3
4.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5. 변수의 설정 및 측정	4
II. 충청북도의 사회복지 지표 현황	7
1. 업무추진 목표	7
2. 업무 추진 방향 및 추진 과제	7
III. 충청북도의 사회복지 부문별 수준 분석	9
1. 노인복지	9
2. 장애인복지	36
3. 여성복지	67
4. 아동복지	81
5. 사회복지 재정	97
IV. 결론	107
1. 요약	107
2. 논의 및 제한점	110
3. 제안: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방향제시	111
[참고문헌]	112

2016 조사연구 표목차

<표 1-5-1> 노인복지 부문	4
<표 1-5-2> 장애인복지 부문	5
<표 1-5-3> 여성복지 부문	6
<표 1-5-4> 아동복지 부문	6
<표 1-5-6> 사회복지재정 부문	6
<표 3-1-1> 노인 10만 명 당 노인주거복지 시설 수 : 노인양로시설	10
<표 3-1-2> 노인 10만 명 당 노인주거복지 시설 수 : 노인공동생활가정	11
<표 3-1-3> 노인 10 만 명 당 노인주거복지 시설 수 : 노인복지주택	12
<표 3-1-4> 노인 10 만 명 당 의료복지 시설 수 : 노인요양시설	13
<표 3-1-5> 노인 10 만 명 당 의료복지 시설 수 : 노인공동요양생활가정	14
<표 3-1-6> 노인 10 만 명 당 노인여가복지 시설 수 : 노인복지관	15
<표 3-1-7> 노인 10 만 명 당 노인여가복지 시설 수 : 경로당	16
<표 3-1-8> 노인 10 만 명 당 노인여가복지 시설 수 : 노인교실	17
<표 3-1-9> 노인 10 만 명 당 재가노인복지 시설 수 : 방문요양서비스	18
<표 3-1-10> 노인 10 만 명 당 재가노인복지 시설 수 : 주야간보호서비스	19
<표 3-1-11> 노인 10 만 명 당 재가노인복지 시설 수 : 단기보호서비스	20
<표 3-1-12> 노인 10 만 명 당 재가노인복지 시설 수 : 방문목욕서비스	21
<표 3-1-13> 노인 10 만 명 당 재가노인복지 시설 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2
<표 3-1-14> 노인 10 만 명 당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수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수	22
<표 3-1-15> 전체 사회봉사단체 대비 노인복지시설 비율 : 노인복지시설	23
<표 3-1-16> 노인 10만 명당 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수 : 노인양로시설	24
<표 3-1-17> 노인 10만 명당 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수 : 노인공동생활주택	25
<표 3-1-18> 노인 10만 명당 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수 : 노인복지주택	26
<표 3-1-19> 노인 10만 명당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 : 노인요양시설	27
<표 3-1-20> 노인 10만 명당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 : 노인공동요양생활가정	28
<표 3-1-21> 노인 10만 명 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수 : 노인복지관	29
<표 3-1-22> 노인 10만 명 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 방문요양서비스	30
<표 3-1-23> 노인 10만 명 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 주야보호서비스	31
<표 3-1-24> 노인 10만 명 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 단기보호서비스	32
<표 3-1-25> 노인 10만 명 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 방문목욕서비스	33

<표 3-1-26> 노인 10만 명 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34
<표 3-1-27> 노인 10만 명 당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종사자 수	34
<표 3-1-28> 전체 사회복지사 대비 재가부문 사회복지사 비율(%)	35
<표 3-2-1> 지표 산출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별 등록 장애인 수	36
<표 3-2-2> 장애유형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38
<표 3-2-3>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수	39
<표 3-2-4>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수	40
<표 3-2-5>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수	41
<표 3-2-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수	42
<표 3-2-7> 장애인 복지관 수	43
<표 3-2-8>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수	44
<표 3-2-9> 장애인 체육시설 수	45
<표 3-2-10>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	46
<표 3-2-11> 청각장애인 1인당 수화통역센터 수	47
<표 3-2-1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인원 및 이용 금액	49
<표 3-2-13>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인원	51
<표 3-2-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	53
<표 3-2-15>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수	54
<표 3-2-16>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수	55
<표 3-2-17> 장애인 특수학교 수	56
<표 3-2-18> 장애인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57
<표 3-2-19> 장애인 임금근로자 추정 수 및 비율	58
<표 3-2-20> 장애인 의무고용률	59
<표 3-2-21> 장애인 고용률	60
<표 3-2-22> 16개 광역시도별 장애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61
<표 3-2-23> 저상버스 도입비율	62
<표 3-2-24>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2014)	63
<표 3-2-25> 편의시설 설치비율(2013)	65
<표 3-2-26>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	66
<표 3-3-1> 여성 인구 수	67
<표 3-3-2> 기초생활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	68
<표 3-3-3> 여성의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가입자 비율	69
<표 3-3-4>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70

<표 3-3-5>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 비율	71
<표 3-3-6> 강력범죄 여성피해자 비율	72
<표 3-3-7> 남성육아휴직자 비율	73
<표 3-3-8> 건강가정지원센터 수	74
<표 3-3-9>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75
<표 3-3-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	76
<표 3-3-1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수	77
<표 3-3-12> 광역의회 여성의원 수	78
<표 3-3-13> 기초의회 여성의원 수	79
<표 3-3-14>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0
<표 3-4-1> 요보호아동 100명 당 아동복지시설 수 : 아동복지시설	82
<표 3-4-2> 아동복지시설 분류별 시설 수 : 아동양육시설	83
<표 3-4-3> 아동복지시설 분류별 시설 수 : 아동보호치료시설	84
<표 3-4-4> 아동복지시설 분류별 시설 수 : 자립지원시설	85
<표 3-4-5> 아동복지시설 분류별 시설 수 : 종합시설	86
<표 3-4-6> 아동복지시설 분류별 시설 수 : 아동일시보호시설	87
<표 3-4-7> 아동복지시설 분류별 시설 수 : 아동상담소	88
<표 3-4-8> 아동복지시설 분류별 시설 수 : 아동전용시설	89
<표 3-4-9> 아동복지시설 분류별 시설 수 : 개인양육시설	90
<표 3-4-10>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 : 공동생활가정	91
<표 3-4-11>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92
<표 3-4-12>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접수 건 수	93
<표 3-4-13> 지역아동센터 수	94
<표 3-4-14>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	95
<표 3-4-15> 전체 사회봉사단체 대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비율	96
<표 3-5-1> 국가 사회복지분야 지출 비중	98
<표 3-5-2>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 현황	99
<표 3-5-3> 시도별 지방세 비중	100
<표 3-5-4>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101
<표 3-5-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 비중(2015)	102
<표 3-5-6> 지역별 사회복지비 지출(결산) 비율	103
<표 3-5-7> 지방보조금 비율	104
<표 3-5-8> 시도별 재정자립도	10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충청북도의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이 세워졌고, 2007년부터 시작된 제1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전반적인 사회복지분야를 일관되게 향상시켜옴.
- 최근 들어 한국의 사회복지환경이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변화로써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가 증가함.
- 사회복지수준은 국제적인 수준에 합당하도록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대상별 하위부문도 이에 따르고 있는 편임.
-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충청북도 복지서비스 수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 충청북도의 사회복지 하위부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노인의 경우,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노년기를 활동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고, 노인이라는 연령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으며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정경희, 2012).
- 장애인의 경우, 인권조약이 선언적이고 권유적인 지침이나 보편적이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협약이 필요함에 따라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되었고 한국에서의 이행이 지속됨(정도선, 2011; 정한울, 2016).
- 여성의 경우, 유엔의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새천년계획(SDGs)을 2015년에 마치고

고 2030년까지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양성평등을 통합하는 것으로 정함. 한국은 1995년에 유엔의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기회로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한 후, 2015년부터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시행하게 됨(여성가족부, 2015; 이수연, 2016;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2015).

- 아동의 경우, 모든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최우선주의의 원칙을 강조해서 차별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이 협약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에 본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의무를 갖게 됨. 그 후 협약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과정에 대하여 권고를 받기도 하였음(김미란, 2013; 우병창, 2011).
- 이러한 방향에 따라 시행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의 하위부문에 대한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도민이 받아들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됨.

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북도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이러한 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충청북도 사회복지정책방향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문제
 - 첫째,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에 대한 비전과 추진전략에 따른 하위부문의 구체적인 목표 파악
 - 둘째, 충청북도의 사회복지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구성요소로서 시설환경, 조직과 인적자원과 재정에 대하여 파악
 - 셋째,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에 대한 현재의 공급체계를 우선적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미래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분석

3. 연구내용

-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위부문영역과 구성요소를 설정해 보았음.
-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하위분야에 대하여 기존의 관련 연구 및 보고서들은 대체적으로 하위부문을 인적분야의 복지부문에 한정하여 살펴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여기에서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등의 4개 부문을 분석하고자 함. 이유는 충청북도의 인적대상 사회복지부문의 영역은 보건복지국의 업무내용에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의 3개 부문과 2015년부터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추세에 따라 여성복지부문을 추가하게 됨.
- 구성요소에 대하여 주로 예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여기에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시설, 조직 및 인적자원 등의 조직적 체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으며 이유는 복지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성 체계를 중심으로 관련되는 요소를 살펴보면 복지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교환 장소로서의 시설, 이들에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닌 전문가 그리고 서비스를 위한 재정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함.

4.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양적분석으로서 각 부문의 자료를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함. 구체적으로 자료는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의 공공데이터 및 연구보고서를 통해 각 부문의 시설환경, 조직 및 인적자원, 재정현황 등의 데이터를 수집함. 분석은 17개 광역시도별로 비중과 절대값 등을 비교하여 연도별 추

이, 지자체별 순위에서 충청북도의 순위를 중심으로 기술함. 연도는 현재를
기준하여 3년 간격으로 2009년, 2012년, 2015년을 설정함.

5. 변수의 설정 및 측정

- 본 연구는 충북지역 사회복지서비스의 분야별 수준분석을 위하여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의 분야별 기술적 현황 및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분석함. 각 분야별 주요변수는 시설환경, 조직 및 인적자원, 재정현황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하여 측정하며 세부적인 측정은 다음과 같음.

<표 1-5-1> 노인복지부문

	노인복지
시설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1인당 노인주거복지시설 수 : 노인양로시설, 노인1인당 노인공동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 노인1인당 노인의료복지시설 수 :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1인당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노인1인당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노인1인당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수
인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봉사단체 소속인원 대비 노인복지시설 소속인원 비율, - 노인1인당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수 : 노인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 노인1인당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수 :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1인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수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노인1인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노인1인당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수 - 전체 사회복지사 대비 재가부문 사회복지사비율

<표 1-5-2> 장애인복지부문

		장애인복지
시설현황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수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수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 장애인체육시설 수 장애인생활활동지원센터 수 청각장애인 1인당 수화통역센터 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인원 및 이용금액 장애인 발달재활시설서비스 이용인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종사자 수
인적 자원	교육부문	장애인 특수학교 수 장애인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장애인특수학급 학생 수
	고용부문	지역별 장애인 임금근로자 추정 수 및 비율 장애인 의무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1 : 전체 장애인 고용률 2 :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 수 기준 고용률
	편의시설	저상버스 도입비율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 편의시설 설치비율
	관련조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

<표 1-5-3> 여성복지부문

여성복지	
시설현황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남성육아 휴직자 비율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건강가정지원센터 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수 성별임금격차 비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 강력범죄 여성피해자 비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수
인적 자원	광역 및 기초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

<표 1-5-4> 아동복지 부문

아동복지	
시설 현황	요보호아동 100명 당 아동복 아동상담소 지시설 수 : 아동전용시설 아동양육시설 개인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일시보호시설
인적 자원	전체 사회봉사단체 대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비율

<표 1-5-6> 사회복지재정 부문

사회복지 재정	
사회복지비 관련 재정	국가 사회복지분야 지출 비중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 현황 (2015) 시도별 지방세 비중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 비중(2015) 지역별 사회복지비 지출(결산) 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시도별 재정자립도

II. 충청북도의 사회복지 지표 현황¹⁾²⁾

1. 업무추진 목표

- 충북북도 사회복지의 비전 :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구현’
- 사회복지의 전략목표
 - 노인복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 장애인복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여성복지 ‘여성의 복지수준 제고’
 - 아동복지 ‘아동 맞춤형 아동복지 강화’

2. 업무 추진 방향 및 추진 과제

- 노인복지부문
 - 급속한 고령사회의 도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보장이 절실, 평균수명의 연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사회참여 기반조성이 필요함. 이행과제로 활기차고 품격 높은 노후생활 보장, 시설어르신 안전과 인권보호 강화 등임.
 - 활기차고 품격 높은 노후생활 보장은 안정적 노후소득 및 자립기반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조성, 활기찬 노후여가문화 지원 등이 해당됨.
 - 시설어르신 안전과 인권보호 강화는 맞춤형 시설 지원으로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과 어르신 인권보호 강화 및 투명성 제고, 친환경 장사 편의시설 확충 등을 제시함.

1) 충청북도청 보건복지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 여성복지는 충청북도청 여성정책관실 홈페이지(life.chungbuk.go.kr) 참조

□ 장애인복지부문

- 장애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자립능력 향상,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증대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책임 증대에 대해 대처함. 이행과제로는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및 재활 역량 강화, 시설 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임.
-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에 대한 성과지표로는 장애인복지·건강서비스 확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장애인 단체 활성화 및 이동편의 지원.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재활역량 강화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장애인 직업훈련 및 생산품 판매활성화, 장애인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 등을 실시함.
- 시설 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안정적 지원, 시설 장애인 인권보호와 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지표로 제시함.

□ 여성복지부문

- 여성의 동등한 참여보장을 기대하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여성복지의 증진에 힘씀. 이행과제로는 동등한 참여기회 보장,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여성의 복지수준 제고 등임.
- 주요 성과지표는 성평등 정책 강화 및 대표성 제고, 여성 경제활동 촉진,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폭력방지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여성농(어)업인의 권리향상 및 전문성 제고, 성평등의식 제고 및 문화·교육활동 촉진

□ 아동복지부문

- 아동권익신장 및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관심 증폭, 향후계획은 복지재정 효율화로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함.
- 이행과제로 따뜻하고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을 선정함.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 과 인권보호 강화, 요보호 아동의 안정적 성장도모, 민·관 협력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성과지표를 갖춤.

Ⅲ. 충청북도의 사회복지 부문별 수준 분석

1. 노인복지

1) 시설환경

(1) 노인 10 만 명 당 노인주거복지 시설 수

□ 노인양로시설

- 전체 노인양로시설 항목의 경우 6년간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 당 평균 시설 수에서 각 전년도 대비 2012년 23.66개로 12.26%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0년 1.42%, 2011년 3.25%, 2013년 3.65%, 2014년 6.89%, 2015년 5.19%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양로시설 수에 대하여 세종, 충북, 경기, 인천, 강원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세종이 17.86개로 전국 평균의 3배를 넘는 수치를 보이며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함. 서울의 경우 0.71개로 최하위인 17위를 차지하고 있음.
- 노인양로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4.56개를 상회하는 8.09개 수준이지만 1위와는 큰 차이를 보이며 전체에서 2위를 차지함.

<표 3-1-1> 노인 10만 명 당 노인주거복지 시설 수 : 노인양로시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1.92	2.09	2.01	1.27	1.21	1.14	0.71
부산	1.31	1.24	1.44	1.13	1.07	1.21	1.17
대구	2.06	1.98	1.92	1.82	1.73	1.97	2.21
인천	8.42	9.25	6.79	7.49	7.08	6.68	6.71
광주	2.42	2.30	2.20	2.07	1.98	1.87	1.80
대전	4.82	4.61	3.68	2.10	1.99	1.88	1.81
울산	1.36	1.30	1.24	1.17	1.09	1.02	1.94
세종				23.24	22.27	20.02	17.86
경기	10.67	10.86	10.35	9.43	9.03	7.46	6.90
강원	8.29	7.07	8.15	7.03	6.01	6.63	6.11
총북	11.10	10.27	10.03	8.36	9.45	8.71	8.09
충남	5.98	5.83	5.40	4.52	5.31	3.92	2.64
전북	5.04	4.57	4.45	3.29	3.52	3.09	3.30
전남	6.40	6.84	7.30	7.64	5.87	5.72	4.85
경북	4.12	4.78	5.18	5.03	4.64	4.91	5.84
경남	3.17	3.09	3.50	2.89	3.01	3.11	3.23
제주	3.00	2.87	2.76	2.63	2.52	2.42	2.33

□ 노인공동생활가정

- 전체 노인공동생활가정 항목의 경우 6년간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 당 평균 시설 수에서 각 전년도 대비 2010년 34.54%, 2011년 12.97% 2012년 3.99%, 2013년 18.27%, 2014년 0.84%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11.97% 감소함.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하여 충북, 강원, 경기, 전남, 충남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제주 5개 지역의 경우 0개로 공동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1.84개를 크게 웃도는 7.67개로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함.

<표 3-1-2> 노인 10만 명 당 노인주거복지 시설 수 : 노인공동생활가정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0.32	-	-	0.45	0.34	0.33	0.24
부산	-	-	-	-	-	-	-
대구	-	-	-	-	-	-	-
인천	-	-	2.39	1.87	1.77	1.34	0.96
광주	-	-	-	-	-	-	-
대전	1.61	1.54	1.47	1.40	4.65	2.51	3.02
울산	-	1.30	1.24	1.17	-	-	-
세종				-	-	-	-
경기	1.76	2.35	2.42	3.35	2.76	3.97	3.79
강원	5.06	6.18	4.72	5.38	5.61	6.24	5.73
충북	4.54	5.87	6.68	8.36	7.65	9.58	7.67
충남	2.66	3.56	4.13	3.55	3.12	3.92	3.22
전북	0.72	0.70	1.03	1.98	2.24	2.78	1.80
전남	0.29	0.85	1.12	0.82	4.54	2.86	3.32
경북	0.49	0.96	0.71	0.46	1.11	1.07	0.83
경남	0.26	0.51	1.00	0.96	1.39	0.89	0.65
제주	-	-	-	-	-	-	-

□ 노인복지주택

○ 전체 노인복지주택 항목의 경우 6년간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 당 평균 시설 수에서 각 전년도 대비 2010년 22개로 3.76%, 2011년 24개로 8.63% 상승, 2012년 21개로 12.71% 감소, 2013년 22개 6.97% 상승하는 등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2014년 54개로 139.87%으로 크게 증가함. 2015년 51개로 5.75% 소폭 감소함.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복지주택 수에 대하여 세종, 전북, 서울, 경기, 인

천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세종의 경우 4.46개로 1위를 차지함.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9개 지역의 경우 0개의 시설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0.51에 미치지 못하는 0개로 최하위에 위치해 시설 도입이 필요함. 최근 노인분양 주택관련 분양사기가 있었던 만큼 시설 확충과 더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 됨.

<표 3-1-3> 노인 10 만 명 당 노인주거복지 시설 수 : 노인복지주택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0.96	1.00	1.05	0.90	0.86	0.82	0.87
부산	0.52	0.50	0.48	0.45	0.43	0.40	0.39
대구	-	-	-	-	-	-	-
인천	0.44	0.42	0.40	0.37	0.35	0.67	0.64
광주	-	-	-	-	-	-	-
대전	-	-	-	-	-	-	-
울산	-	-	-	-	-	-	-
세종	-	-	-	-	-	5.00	4.46
경기	0.41	0.59	0.56	0.53	0.59	0.71	0.76
강원	0.46	0.44	0.43	0.41	0.40	0.39	0.38
충북	-	-	-	-	-	-	-
충남	-	-	-	-	-	-	-
전북	0.36	0.35	0.69	0.66	0.96	0.93	0.90
전남	-	-	-	-	-	-	-
경북	0.24	0.24	0.24	0.23	0.22	0.21	0.21
경남	-	-	-	-	-	-	-
제주	-	-	-	-	-	-	-

(2) 노인 10만 명 당 의료복지 시설 수

□ 노인요양시설

- 전체 노인요양시설 항목의 경우 6년간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 당 평균 시설 수에서 2010년 36.08%로 다소 크게 증가한 이후 2011년 1.40% 감소, 2012년 1.66% 증가, 2013년 6.44% 감소, 2014년 2.21% 증가. 2015 3.02% 증가하는 등으로 비교적 일정한 추세를 보임.

- 노인인구 10만 명 당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인천, 제주, 경기, 충북, 강원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인천의 경우 70.31개로 1위를 차지함. 이에 반해 서울의 경우 15.21개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45.67개를 상회하는 64.31개로 전체에서 4위를 차지함. 충북 11개 시·군 중 보은, 괴산, 영동, 단양, 옥천 등 5개 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청주 제외 제천, 충주, 음성, 진천, 증평이 고령사회로 들어가 실버세대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시설 확충이 요구 됨.

<표 3-1-4> 노인 10 만 명 당 의료복지 시설 수 : 노인요양시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13.57	23.04	22.68	21.17	14.29	14.39	15.21
부산	19.12	22.90	21.53	21.26	19.04	17.99	17.88
대구	16.92	24.99	27.30	25.90	24.55	26.22	27.20
인천	42.98	60.97	62.67	61.04	59.12	63.10	70.31
광주	36.27	55.96	53.51	50.44	46.75	46.07	46.88
대전	27.30	43.00	44.20	47.56	43.81	45.23	45.91
울산	36.83	41.67	39.77	37.32	29.50	30.64	28.10
세종				58.09	50.12	45.03	40.18
경기	42.48	66.02	64.62	65.18	59.05	62.91	66.12
강원	46.49	55.64	56.17	56.68	51.29	53.42	59.62
충북	42.40	65.54	54.90	54.82	51.76	58.79	64.31
충남	29.21	40.51	44.12	44.86	45.60	45.49	48.65
전북	45.38	52.75	51.73	50.73	47.32	46.65	45.27
전남	34.03	43.89	43.78	44.74	44.32	46.56	48.49
경북	31.05	40.11	42.41	44.34	43.32	44.57	47.74
경남	29.10	41.69	40.05	41.22	39.85	39.27	38.58
제주	50.97	61.75	60.62	63.22	68.09	67.74	66.36

□ 노인공동요양생활가정

- 전체 노인공동요양생활가정 항목의 경우 6년간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 당 평균 시설 수에서 각 전년도 대비 2010년 36.24% 증가, 2011년 16.17% 증가, 2012년 3.02%, 2013년 9.42% 증가로 증가추세가 수그러들다가 2014년 2.93% 감소, 2015년 2.71% 감소하며 감소 추세로 돌아섬.
- 노인 인구 10 만 명 당 노인공동요양생활가정에 대하여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인천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대구의 경우 55.99개로 1위를 차지함. 부산의 경우 5.25개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27.31 이상인 46.42로 전체에서 4위를 차지함. 이미 최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요양시설에 들어가려 기다리는 노인들이라는 ‘대기노인’이란 신조어가 생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에 충북 역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

<표 3-1-5> 노인 10 만 명 당 의료복지 시설 수 : 노인공동요양생활가정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15.50	19.45	19.72	21.62	30.30	29.10	28.75
부산	8.64	16.18	12.68	11.53	7.70	6.47	5.25
대구	11.55	29.75	41.53	48.88	62.23	56.70	55.99
인천	15.07	26.49	27.14	32.58	39.30	38.06	37.07
광주	10.48	13.80	16.86	16.58	19.09	19.92	17.43
대전	23.29	25.34	26.52	25.18	22.57	23.87	23.56
울산	4.09	11.72	12.43	10.50	14.20	14.30	14.53
세종				17.43	11.14	10.01	8.93
경기	37.40	39.41	44.85	45.63	53.03	52.36	49.06
강원	23.94	27.82	34.30	35.58	41.68	47.96	47.77
충북	36.85	38.15	52.51	58.07	57.16	49.21	46.42
충남	17.93	27.87	32.06	32.92	32.79	31.94	31.65
전북	15.49	15.12	18.84	20.09	21.74	22.24	20.69
전남	16.87	26.79	29.75	28.92	30.17	27.57	26.80
경북	9.70	19.34	22.86	24.68	26.75	28.37	28.98
경남	11.11	9.01	13.02	11.33	11.82	11.98	10.99
제주	1.50	7.18	5.51	7.90	10.09	7.26	10.48

(3) 노인 10 만 명 당 노인여가복지 시설 수

□ 노인복지관

- 전체 노인복지관 항목의 경우 6년간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 당 평균 시설 수에서 2010년 5.33개, 2011년 5.69개, 2012년 5.13개, 2013년 5.34개, 2014년 5.10개, 2015 5.05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복지관 수에 대해 울산, 전남, 충북, 광주, 전북 순으로 높게 나타남. 울산의 경우 10.66개로 1위를 차지함. 세종의 경우 0개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5.05개를 상회하는 6.81개로 3위를 차지함. 하지만 충북 도내 16개 노인복지관 모두 법인이 운영해 지자체 직영이 없는 점이 지적됨.

<표 3-1-6> 노인 10 만 명 당 노인여가복지 시설 수 : 노인복지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3.21	3.09	3.92	5.34	5.60	6.05	5.86
부산	3.14	3.98	4.07	4.52	4.71	6.06	4.66
대구	4.13	3.97	4.23	4.01	4.15	4.26	4.43
인천	7.09	6.31	7.18	4.87	6.37	6.01	5.75
광주	7.25	7.67	6.60	4.84	6.58	6.23	6.61
대전	4.82	4.61	4.42	4.20	3.98	3.77	4.23
울산	9.55	10.42	9.94	9.33	10.93	10.21	10.66
세종				-	-	-	-
경기	4.56	4.69	4.48	4.49	4.18	4.12	4.09
강원	3.22	3.97	3.86	4.14	4.41	4.68	4.97
충북	7.07	7.83	7.64	7.43	7.20	7.40	6.81
충남	4.32	4.21	4.13	4.20	4.06	4.22	4.40
전북	6.48	7.03	6.85	6.92	6.39	7.11	6.60
전남	6.40	7.41	8.14	7.64	6.94	8.32	7.91
경북	2.43	3.10	3.06	2.97	3.09	2.99	3.54
경남	4.50	4.12	4.25	4.34	4.63	3.99	4.09
제주	3.00	2.87	8.27	7.90	7.57	1.21	1.16

□ 경로당

- 전체 경로당 항목의 경우 6년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 당 평균 시설 수에서 각 전년도 대비 2010년 1180개, 2011년 1160개, 2012년 1163개, 2013년 1164개 2014 1122개 2015 1097개로 비교적 일정한 수치를 나타냄. 하지만 2014년 3.62% 감소, 2015 2.20% 감소로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경로당 수에 대하여 전남, 전북, 세종, 충북, 충남 순서로 높게 나타남. 전남의 경우 2255개로 1위를 차지함. 서울의 경우 264개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1097개 이상인 1725개로 전체에서 4위를 차지함. 경로당 중 30.4 %에서 에어컨이 없다는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시설 수 증가와 더불어 시설 확충이 필요함.

<표 3-1-7> 노인 10 만 명 당 노인여가복지 시설 수 : 경로당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329	311	304	292	281	270	264
부산	518	501	491	475	456	441	434
대구	527	537	531	514	489	467	455
인천	576	557	542	521	506	477	462
광주	940	924	900	858	830	798	779
대전	598	573	558	541	521	497	484
울산	975	953	923	869	826	779	750
세종				1702	2177	1971	1888
경기	874	842	819	785	756	727	701
강원	1284	1260	1246	1220	1197	1182	1165
충북	1958	1922	1902	1840	1800	1748	1725
충남	1849	1848	1768	1765	1722	1680	1646
전북	2217	2208	2179	2116	2071	2017	1969
전남	2396	2384	2374	2336	2307	2277	2255
경북	1726	1732	1747	1722	1689	1649	1626
경남	1779	1767	1744	1700	1649	1595	1560
제주	564	556	537	522	509	495	485

□ 노인교실

- 전체 노인교실 항목의 경우 6년간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 당 평균 시설 수에서 각 전년도 대비 2010년 8.53% 증가한 23.96개, 2011년 2.35% 증가한 24.52개, 2012년 8.60% 감소한 22.41개, 2013년 4.32% 증가한 23.38개, 2014 10.50% 감소한 20.92개, 2015 1.79% 감소한 20.55개로 대체로 일정한 수치를 보임. 2011년 24.52개로 최고점에 다다른 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5년은 최근 6개년 간 최저 수치인 20.55개를 나타냄.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교실 수에 대하여 세종, 부산, 제주, 서울, 광주 순으로 높게 나타남. 세종의 경우 2위인 부산의 33.23개 수치를 상회하는 35.72개로 1위를 차지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20.55에 크게 미치지 못한 2.56개로 자료에 제시된 2009년 이래 매년 최하위를 차지함. 2011년 노인 인구 10만 명 당 29.60개까지 올랐던 수치가 2015년에는 2.56개로 최근 6개년 간 최저 수치에 이르렀기에 시설 수 증가가 요구 됨.

<표 3-1-8> 노인 10 만 명 당 노인여가복지 시설 수 : 노인교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35.69	34.30	33.50	31.84	30.82	30.33	29.31
부산	45.84	44.80	41.38	37.77	34.44	33.96	33.23
대구	22.69	21.42	20.38	15.68	17.63	16.71	16.13
인천	10.19	14.30	15.17	13.11	13.10	14.69	13.42
광주	8.87	13.80	19.79	26.95	28.31	29.88	25.84
대전	12.85	26.87	10.31	9.79	23.23	13.82	10.87
울산	30.01	35.16	29.83	27.99	20.76	19.40	21.32
세종				40.66	44.55	35.03	35.72
경기	19.27	28.07	32.17	14.62	14.47	12.37	12.66
강원	11.05	8.83	9.43	7.86	8.01	10.53	14.90
충북	3.03	2.45	29.60	6.97	4.05	6.53	2.56
충남	25.23	24.95	21.58	25.82	26.23	24.40	20.22
전북	27.01	29.54	29.12	27.34	21.10	20.39	21.29
전남	21.52	26.79	25.26	18.55	24.83	16.65	15.31
경북	23.77	24.83	24.98	25.14	24.31	23.67	23.14
경남	21.69	21.36	19.52	21.94	27.57	19.53	21.98
제주	34.48	25.85	30.31	28.98	34.05	27.82	31.43

(4) 노인 1인당 재가노인복지 시설 수

□ 방문요양서비스

- 전체 방문요양서비스 항목의 경우 6년간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 당 평균 시설 수에서 2011년에 2.77%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각 전년도 대비 2010년 10.50%, 2012년 11.96%, 2013년 9.96% 2014년 10.96% 2015년 0.42% 감소하며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하여 광주, 전북, 전남, 강원, 대전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광주의 경우 67.31개로 1위를 차지함. 충남 지역의 경우 평균의 절반 수준인 9.09개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18.89개 이하인 11.50개로 전체에서 14위를 차지해 하위권에 위치함. 노인인구와 1인 가구 수 증가로 독거노인 인구가 증가세에 있기에 이를 고려한 시설 수 증가가 필요한 시점임.

<표 3-1-9> 노인 10 만 명 당 재가노인복지 시설 수 : 방문요양서비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11.65	10.57	9.86	10.22	7.40	7.68	9.51
부산	16.76	16.92	19.14	14.02	13.69	11.52	12.24
대구	23.93	25.39	23.07	18.60	16.94	14.09	13.29
인천	30.57	26.91	22.35	21.34	17.70	17.03	16.62
광주	90.26	100.42	93.10	79.46	74.40	62.88	67.31
대전	25.70	26.87	26.52	24.48	21.90	20.73	19.94
울산	31.38	22.14	28.58	24.49	20.76	18.38	18.41
세종				17.43	11.14	15.01	13.39
경기	14.09	13.01	14.73	11.54	9.87	11.42	9.86
강원	20.26	23.40	23.15	23.58	17.63	19.11	22.55
충북	17.16	19.56	21.96	17.65	13.95	10.89	11.50
충남	17.93	12.96	15.87	13.56	14.05	9.94	9.09
전북	34.57	30.95	30.83	28.33	27.82	26.88	26.98
전남	68.34	35.62	35.08	35.47	40.05	29.40	25.78
경북	15.53	16.24	15.79	16.46	13.93	12.80	12.30
경남	20.90	18.79	21.02	19.28	15.75	14.20	13.79
제주	28.48	18.67	28.93	26.34	25.22	20.56	18.63

□ 주야간보호서비스

- 전체 주야간보호서비스 항목의 경우 6년간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 당 평균 시설 수에서 2010년 0.21%, 2011년 1.39%로 소폭 상승하다가 2013년 최근 6년간 최저치인 13.29개에 다다른 후 전년도 대비 2014년 3.62% 증가한 13.77개, 2015년 8.88% 증가한 14.99개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하여 광주, 대전, 서울, 전북, 강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광주의 경우 32.45개로 전체 1위를 차지함. 인천 지역의 경우 5.43개로 최하위인 17위를 차지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14.99개 이하인 11.50개로 전체에서 10위를 차지함. 충북은 도내 인구 유입비율보다 노인인구 증가세가 더 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기에 시설 증가가 필요함.

<표 3-1-10> 노인 10 만 명 당 재가노인복지 시설 수 : 주야간보호서비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12.40	17.25	18.76	18.81	18.42	19.05	20.83
부산	14.67	11.95	12.44	10.40	10.06	9.70	9.72
대구	9.90	11.50	11.54	11.31	11.41	10.16	10.76
인천	8.86	6.73	6.39	5.24	4.25	4.67	5.43
광주	27.40	31.43	26.39	21.42	24.36	23.04	32.45
대전	16.06	17.66	16.21	15.39	16.59	21.36	25.37
울산	21.83	11.72	17.40	15.16	10.93	11.23	8.72
세종				5.81	5.57	10.01	13.39
경기	15.54	15.55	15.76	13.57	12.71	13.80	14.41
강원	13.35	16.34	16.72	15.72	14.03	15.21	19.49
충북	11.61	13.21	13.84	13.47	12.15	11.76	11.50
충남	6.64	5.51	7.30	10.33	7.81	9.04	9.09
전북	14.77	13.71	15.07	17.46	17.59	19.46	19.79
전남	20.07	18.24	18.52	16.92	18.42	16.65	15.57
경북	8.01	9.07	9.66	9.83	9.28	9.60	10.01
경남	12.17	12.09	11.76	11.09	10.89	9.98	9.70
제주	25.48	27.28	24.80	22.39	21.44	19.35	18.63

□ 단기보호서비스

- 전체 단기보호서비스 항목의 경우 6년간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 당 평균 시설 수에서 각 2009년 5.66개 대비 2015년 1.23개로 6년 사이 78.35% 감소해 2011년, 2012년 증가를 보였음에도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냄.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단기보호서비스에 대하여 서울, 세종, 경북, 충남, 인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서울의 경우 4.83개로 1위를 차지함. 부산, 대전, 울산, 제주 4개의 지역의 경우 기존 단기보호서비스가 사라져 시설 수 0개로 공동 최하위를 차지함.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1.23개를 약간 상회하는 1.28개로 전체에서 6위를 차지함. 단기보호서비스란 홀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가족들이 돌보는 경우 집을 비우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 단기적으로 노인을 장기요양기관에 위탁하는 서비스로 필수적인데 노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가 준비되고 있음.

<표 3-1-11> 노인 10 만 명 당 재가노인복지 시설 수 : 단기보호서비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5.66	1.40	2.68	2.89	4.13	3.60	4.83
부산	3.41	0.25	0.48	0.23	-	0.20	-
대구	3.30	1.59	1.15	2.19	1.73	0.98	0.32
인천	3.99	0.42	2.00	2.25	1.77	1.34	1.28
광주	8.87	1.53	0.73	-	-	-	0.60
대전	11.24	2.30	2.21	0.70	-	-	-
울산	4.09	-	-	-	-	-	-
세종				5.81	5.57	5.00	4.46
경기	3.52	0.88	1.59	0.97	1.09	0.87	0.91
강원	6.91	0.88	0.43	0.41	0.80	0.39	0.38
충북	4.04	1.47	1.43	1.86	1.35	1.31	1.28
충남	2.99	0.65	0.95	0.97	1.25	1.81	2.05
전북	5.76	2.11	1.37	1.65	1.28	1.24	0.60
전남	12.21	0.57	1.12	0.82	1.60	1.04	0.77
경북	7.28	2.87	3.30	3.20	2.87	1.71	2.71
경남	5.82	1.29	1.50	1.21	1.16	1.11	0.65
제주	1.50	1.44	1.38	1.32	1.26	1.21	-

□ 방문목욕서비스

- 전체 방문목욕서비스 항목의 경우 6년간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 당 평균 시설 수에서 각 전년도 대비 2010년 13.69%, 2011년 23.55% 증가해 14.58개에 도달한 후 2012년 10.78%, 2013년 7.38%, 2014년 8.51% 감소세를 보이며 하락함. 2015년 다시 1.27% 소폭 증가.
- 노인 인구 1인당 방문목욕서비스에 대하여 광주, 전남, 제주, 강원, 대전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광주의 경우 42.67개로 2위인 전남의 16.84개의 2배 이상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11.16개 미달하는 3.41개를 기록함. 4.46개로 16위인 세종에 이어 최하위인 17위에 위치해 방문목욕서비스 시설의 확충이 요구 됨. 비정기적인 봉사행사로서의 방문목욕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서비스를 통해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보임.

<표 3-1-12> 노인 10 만 명 당 재가노인복지 시설 수 : 방문목욕서비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2.99	5.09	5.55	6.15	4.82	5.31	6.50
부산	3.93	5.97	6.94	5.43	4.49	4.65	4.47
대구	6.19	11.11	10.77	7.66	8.30	6.88	6.33
인천	17.72	16.82	14.37	14.98	12.39	13.02	12.46
광주	26.60	52.12	54.25	42.15	38.19	36.73	42.67
대전	8.03	14.59	14.00	13.29	14.60	15.08	13.29
울산	-	-	12.43	10.50	9.83	7.15	6.78
세종				5.81	5.57	5.00	4.46
경기	5.70	6.46	8.02	7.31	6.36	7.06	6.22
강원	10.13	14.13	11.58	13.24	7.61	10.92	14.14
충북	3.53	7.34	10.50	9.76	6.75	3.48	3.41
충남	11.29	9.72	10.16	9.04	8.43	6.93	6.74
전북	9.72	6.33	11.99	12.19	12.47	12.36	11.39
전남	35.48	17.38	19.92	21.83	26.43	17.95	16.84
경북	4.85	7.16	9.90	10.74	10.39	8.74	9.59
경남	7.94	10.29	12.26	11.33	9.27	7.99	8.19
제주	11.99	4.31	20.67	19.76	18.91	18.14	16.30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전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항목의 경우 3년간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 당 평균 시설 수에서 각 전년도 대비 2013년 32.39% 감소, 2014년 11.02% 증가, 2015년 35.74%로 일정하지 않지만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하여 대구, 울산, 경남, 충북, 경북 순서로 높게 나타남. 대구의 경우 16.13개로 1위를 차지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5.52개 이상인 8.09개로 전체에서 4위를 차지함. 하절기에는 폭염, 동절기에는 혹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들이 많은 만큼 계절별로 맞춤 서비스 개발이 필요.

<표 3-1-13> 노인 10 만 명 당 재가노인복지 시설 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262	8.82	4.74	3.00	4.15	7.69	2.33	5.81	5.11	5.79	0.93	7.42	15.48	4.91	5.71	6.27	1.32
2013	0.43	2.14	8.30	3.89	4.61	1.33	4.37	-	4.43	5.61	2.25	7.50	0.96	0.27	2.65	12.28	1.26
2014	0.82	3.84	16.39	1.67	2.49	1.26	12.25	-	1.51	7.41	8.27	3.01	1.54	1.82	2.99	2.66	1.21
2015	0.48	5.64	16.13	6.71	5.41	2.42	14.53	-	4.02	2.68	8.09	6.74	2.40	0.77	7.51	10.34	-

(5) 노인 10 만 명 당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수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수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수에 대하여 강원, 충북, 전북, 대전, 광주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강원 지역의 경우 4.97개로 1위를 차지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2.32 이상인 4.68개로 2위를 차지함.

<표 3-1-14> 노인 10 만 명 당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5	0.55	2.91	2.53	0.32	3.01	3.02	2.91	-	1.21	4.97	4.68	2.05	3.90	1.02	2.50	1.51	2.33

(6) 전체 사회봉사단체 대비 노인복지시설 비율

□ 노인복지시설

- 전체 사회봉사단체 대비 노인복지시설 비율 항목의 경우 6년간 전국 평균 2009년 31.74%, 2010년 30.29%, 2011년 30.24%, 2012년 29.18%, 2013년 30.49% 2014 26.90% 2015 25.90%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임.
- 2015년 기준 전체 사회봉사단체 대비 노인복지시설 비율 항목에 대하여 제주, 대구, 울산, 전남, 경남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제주의 경우 37.82%로 전국 1위를 차지함. 광주의 경우 11.37%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25.90% 이하인 20.65%로 전체에서 13위를 차지함. 게다가 전국적으로 2009년 이래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더 감소할 가능성이 보임.

<표 3-1-15> 전체 사회봉사단체 대비 노인복지시설 비율 : 노인복지시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22.28	24.02	24.76	21.16	18.84	21.65	20.23
부산	37.56	38.05	39.52	34.88	35.09	28.75	23.93
대구	29.76	31.55	27.77	27.56	30.94	33.69	35.74
인천	34.34	30.57	30.52	29.30	28.32	26.62	25.24
광주	37.54	28.08	20.10	20.96	22.54	15.28	11.37
대전	20.29	20.00	24.56	25.82	24.61	20.21	22.38
울산	42.00	45.48	38.89	39.05	36.20	35.46	35.57
세종					63.89	26.09	25.93
경기	26.55	24.51	25.44	25.95	27.32	28.84	29.30
강원	36.32	36.41	33.16	25.51	26.13	21.77	20.85
충북	27.77	32.87	27.42	24.37	28.48	23.75	20.65
충남	19.27	15.97	18.13	21.46	17.12	20.75	19.22
전북	35.08	25.19	25.53	25.69	17.76	13.94	16.26
전남	37.16	34.83	41.50	41.10	36.63	35.31	35.32
경북	31.52	28.47	31.25	28.37	24.22	28.19	27.34
경남	37.26	34.31	38.46	42.25	42.66	38.36	33.18
제주	33.10	34.41	36.78	33.38	37.62	38.69	37.82

2) 조직 및 인적 자원

(1) 노인 10 만 명 당 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수

□ 노인양로시설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양로시설 종사자 수에 대하여 세종, 충북, 경기, 인천, 경북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37.14명 이상인 58.34명으로 전체에서 2위를 차지함. 2015년 기준 충북의 65세 인구는 22만 9천명으로 충북 전체 인구의 14.8%로 나타났고 노인성질환인 치매 및 중풍 환자가 늘고 있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수가 급증함. 이런 추세 속에서 노인양로시설 종사자가 돌보는 노인들이 많아지면 서비스의 질적 성장이 어렵기에 충북 역시 노인양로시설 종사자 충원이 필요.

<표 3-1-16> 노인 10만 명당 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수 : 노인양로시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19.02	19.55	22.88	32.47	14.98	25.83	18.77
부산	14.67	13.94	14.83	14.25	11.98	12.94	13.21
대구	28.47	24.99	24.23	23.34	21.09	22.61	24.04
인천	54.06	55.51	54.29	60.66	57.35	50.41	51.45
광주	22.57	24.53	23.46	23.49	21.73	20.55	21.64
대전	23.29	22.27	20.63	15.39	17.26	15.70	15.10
울산	13.64	13.02	12.43	12.83	10.93	10.21	15.50
세종	-	-	-	121.99	122.51	100.08	89.29
경기	78.64	78.83	79.44	80.42	68.17	62.91	58.00
강원	53.40	50.34	50.60	44.27	45.68	50.69	47.01
충북	57.54	55.76	67.79	63.65	63.01	58.79	58.34
충남	32.53	32.41	35.86	32.92	29.36	29.22	25.20
전북	41.77	43.25	48.99	40.19	38.69	37.38	38.68
전남	52.64	52.44	55.56	57.30	47.79	47.08	41.09
경북	35.17	41.31	42.89	4-	38.02	42.44	49.83
경남	33.07	39.89	40.80	35.68	31.74	32.17	36.21
제주	35.98	34.46	31.69	31.61	30.26	29.03	27.94

□ 노인공동생활주택

-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공동생활주택 종사자 수 항목의 경우 6년간 10만 명 당 평균 종사자 수에서 각 전년도 대비 2010년 17.92% 증가, 2011년 27.24% 증가, 2012년 0.67% 증가, 2013년 37.46% 증가, 2014년 14.66% 감소, 2015년 8.35% 감소로 증가세가 2014년부터 감소 추세로 바뀜.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공동생활주택 종사자 수에 대하여 충북, 강원, 전남, 경기, 충남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전체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공동생활주택 종사자 수 평균인 5.30명에서 크게 상회하는 21.72명으로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함. 충북 총 노인 인구 234813인을 51명의 노인공동생활주택 종사자가 담당하고 있음.

<표 3-1-17> 노인 10만 명당 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수 : 노인공동생활주택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1.18	-	-	1.54	1.12	0.98	0.63
부산	-	-	-	-	-	-	-
대구	-	-	-	-	-	-	-
인천	-	-	6.79	5.62	6.37	4.67	2.56
광주	-	-	-	-	-	-	-
대전	4.02	3.07	5.89	4.90	23.23	7.54	8.46
울산	-	2.60	2.49	-	-	-	-
세종				-	-	-	-
경기	5.39	6.06	7.09	9.16	7.36	11.42	9.78
강원	14.73	17.22	14.15	15.31	16.43	17.16	15.67
충북	12.62	13.69	19.57	25.09	21.60	24.82	21.72
충남	7.30	8.75	12.06	9.68	9.06	10.54	9.38
전북	3.60	2.11	2.40	5.60	7.03	9.58	6.00
전남	0.87	3.13	2.81	2.18	15.48	7.02	12.51
경북	1.46	2.87	2.36	1.60	2.87	2.13	1.25
경남	1.06	2.06	2.75	3.13	4.63	2.44	2.16
제주	-	-	-	-	-	-	-

□ 노인복지주택

- 전체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복지주택 종사자 수 항목의 전국 평균의 경우 각 2009년 3.31명, 2010년 4.19명, 2011년 4.68명, 2012년 3.87명, 2013년 4.29명, 2014년 4.90명, 2015년 4.60명으로 2012년, 2015년 소폭 하락 한 것을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복지주택 종사자 수에 대하여 서울, 세종, 경기, 인천, 부산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전체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복지주택 종사자 수 평균인 4.60명 이하인 0명으로 전체에서 최하위를 차지함. 충북 총 노인 인구 234813인을 0인의 노인복지주택 종사자가 담당하고 있어 관련 부문의 인원 확충이 요구 됨.

<표 3-1-18> 노인 10만 명당 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수 : 노인복지주택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30.67	28.82	36.95	32.47	36.24	22.40	25.19
부산	2.62	6.47	5.98	5.43	5.13	5.66	5.25
대구	-	-	-	-	-	-	-
인천	1.77	1.26	1.20	1.50	1.06	8.01	7.99
광주	-	-	-	-	-	-	-
대전	-	-	-	-	-	-	-
울산	-	-	-	-	-	-	-
세종				-	-	20.02	17.86
경기	13.26	25.53	25.18	21.67	20.91	19.44	16.15
강원	0.92	1.32	0.43	0.41	0.40	-	-
충북	-	-	-	-	-	-	-
충남	-	-	-	-	-	-	-
전북	1.08	1.05	2.40	1.65	6.71	5.25	3.00
전남	-	-	-	-	-	-	-
경북	2.67	2.63	2.83	2.74	2.43	2.56	2.71
경남	-	-	-	-	-	-	-
제주	-	-	-	-	-	-	-

(2) 노인 10 만 명 당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

□ 노인요양시설

- 전체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 항목의 경우 6년간 1인 당 평균 종사자 수에서 각 전년도 대비 2010년 26.51% 증가, 2011년 6.75% 증가, 2012년 5.76% 증가, 2013년 5.10% 증가, 2014년 3.67% 증가, 2015년 3.46%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에 대하여 제주, 인천, 경기, 충북, 강원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전체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 평균인 1191.60명 이상인 1549.32명으로 전체에서 4위를 차지함. 충북 총 노인 인구 234,813인을 3,638인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가 담당하고 있음. 읍면 지역 등 농촌 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읍면 지역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

<표 3-1-19> 노인 10만 명당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 : 노인요양시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340.69	526.84	552.57	528.86	508.22	532.77	577.14
부산	486.94	527.40	532.72	572.37	573.58	555.93	539.22
대구	490.58	641.45	781.81	807.58	813.84	886.48	923.38
인천	903.92	1206.45	1325.60	1334.91	1419.26	1534.08	1678.15
광주	788.18	1060.89	1071.76	1070.94	1077.87	1029.14	1028.31
대전	644.88	905.98	943.72	1113.45	1196.81	1265.08	1343.58
울산	705.31	777.34	766.79	784.97	750.65	742.43	736.40
세종				1063.09	1074.73	905.68	799.14
경기	895.18	1236.83	1254.68	1311.44	1380.32	1539.97	1647.84
강원	925.29	1105.28	1193.73	1282.20	1352.09	1446.98	1533.61
충북	821.74	1027.57	1105.63	1201.42	1268.75	1428.31	1549.32
충남	600.17	768.42	923.90	972.44	1134.93	1171.38	1240.57
전북	849.89	957.55	993.08	1039.57	1058.31	1089.00	1106.97
전남	594.14	730.69	804.83	858.33	911.46	988.25	1018.54
경북	644.55	809.63	904.60	980.53	1094.57	1064.44	1161.30
경남	638.91	846.10	879.03	979.92	1030.24	1055.02	1040.69
제주	1511.11	1852.36	1957.84	2067.83	2240.72	2345.44	2333.14

□ 노인공동요양생활가정

- 전체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공동요양생활가정 종사자 수 항목의 경우 6년간 1인당 평균 종사자 수에서 각 전년도 대비 2009년 75.67명, 2010년 104.28명, 2011년 126.90명, 2012년 130.08명, 2013년 151.13명, 2014년 161.15명, 2015년 155.5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5년 소폭 감소함.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공동요양생활가정 종사자 수에 대하여 대구, 강원, 경기, 충북, 인천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대구명의 경우 329.94명명으로 1위를 차지함. 부산의 경우 28.76명으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전체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공동요양생활가정 종사자 수 평균인 155.56명 이상인 252.54명으로 전체에서 4위를 차지함. 충북 총 노인 인구 234,813인을 593인의 노인공동요양생활가정 종사자가 담당하고 있음.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만큼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함.

<표 3-1-20> 노인 10만 명당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 : 노인공동요양생활가정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78.23	98.83	103.95	112.97	167.60	168.57	172.29
부산	41.65	72.43	59.08	57.89	37.87	33.96	28.76
대구	60.24	142.02	207.66	252.05	319.11	333.62	329.94
인천	97.04	126.99	140.50	166.63	203.91	231.70	217.32
광주	52.38	68.99	79.91	82.22	85.60	107.09	91.35
대전	93.16	119.77	124.50	111.90	122.14	128.77	130.49
울산	16.37	53.39	55.92	44.32	76.49	75.57	78.48
세종				58.09	77.96	75.06	62.50
경기	179.04	188.66	223.13	229.11	274.69	296.44	281.22
강원	105.88	137.77	171.51	176.67	218.80	272.94	282.42
충북	172.12	174.60	247.76	273.18	305.15	252.13	252.54
충남	78.67	128.02	152.98	191.07	174.58	192.22	189.32
전북	66.98	69.28	92.15	96.51	107.43	115.85	113.04
전남	79.39	121.97	149.29	141.60	153.78	152.96	154.91
경북	40.51	89.06	106.04	118.39	137.93	200.05	154.91
경남	43.12	42.20	87.10	56.65	54.44	62.79	58.40
제주	6.00	34.46	28.93	42.15	51.70	39.92	46.57

(3) 노인 10만 명 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수

□ 노인복지관

- 전체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 항목의 경우 6년간 1인당 평균 종사자 수에서 각 전년도 대비 2010년 8.83% 증가, 2011년 2.01% 감소, 2012년 4.66% 감소, 2013년 21.80% 감소, 2014년 1.17% 감소, 2015년 9.55% 증가로 2014년 소폭의 감소를 제외하고 최근 3개년 증가 추세를 보임.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에 대하여 대전, 충북, 울산, 광주, 경기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전체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 평균인 79.73명을 초과하는 132.45명으로 전체에서 2위를 차지함. 충북 총 노인 인구 234,813인을 311인의 노인복지관 종사자가 담당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사회적 이슈인 만큼 충북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개선이 필요 함.

<표 3-1-21> 노인 10만 명 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수 : 노인복지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87.20	80.28	90.93	91.26	100.63	104.97	101.71
부산	34.58	43.56	46.17	62.64	66.96	71.36	55.96
대구	33.42	31.74	29.61	45.60	38.03	37.69	47.13
인천	90.84	90.83	83.42	65.15	73.99	69.44	84.05
광주	124.92	149.47	113.63	58.04	133.00	125.14	118.40
대전	62.64	59.89	60.41	56.65	65.71	120.60	139.55
울산	88.68	104.17	100.66	107.31	163.90	120.50	127.90
세종				-	-	-	-
경기	74.70	83.72	83.55	77.52	87.66	103.76	116.77
강원	37.29	52.55	48.02	55.86	69.33	68.24	80.64
충북	84.80	97.33	88.32	111.50	128.27	114.53	132.45
충남	46.47	51.85	53.32	63.90	56.53	59.35	72.68
전북	69.14	69.28	66.80	71.81	83.45	88.97	115.13
전남	45.08	56.43	56.97	57.84	67.28	74.66	79.11
경북	20.13	23.88	22.62	22.17	25.86	26.23	30.65
경남	33.60	34.74	35.79	34.47	37.07	39.72	40.52
제주	17.99	5.74	34.44	46.10	54.22	12.10	12.81

(4) 노인 10만 명 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 방문요양서비스

- 전체 노인 인구 10 만 명 당 방문요양서비스 종사자 항목의 경우 6년간 1인 당 평균 종사자 수에서 각 전년도 대비 2010년 5.78% 증가, 2011년 7.60% 감소, 2012년 24.87% 감소, 2013년 7.51% 감소, 2014년 2.11% 감소, 2015년 1.88% 감소로 2010년 소폭 증가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 노인 인구 10 만 명 당 방문요양서비스 종사자에 대하여 중복의 경우 2015년 기준 노인 인구 10 만 명 당 방문요양서비스 종사자 전국 평균인 331.30명 이하인 172.48명으로 전체에서 16위를 차지함. 한 번에 방문요양, 간호, 목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 서비스가 있어 별도 기관에 신청해야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있지만 중복의 경우 방문요양서비스 종사자 수가 필요 노인 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여 인력 충원이 요구 됨.

<표 3-1-22> 노인 10만 명 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 방문요양서비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279.45	316.12	261.50	263.84	145.65	148.05	179.26
부산	269.53	273.53	255.95	172.09	171.15	165.36	180.71
대구	243.85	385.19	449.55	340.32	273.12	290.36	240.41
인천	634.96	600.49	494.16	335.51	394.02	389.28	328.85
광주	1948.70	2318.77	1930.93	1562.20	1401.82	1400.20	1330.62
대전	400.74	618.83	719.02	518.26	434.78	408.92	386.04
울산	347.88	570.31	525.69	311.42	292.83	301.26	418.58
세종				-	33.41	130.10	209.83
경기	411.33	392.49	351.90	299.76	252.78	264.08	215.41
강원	282.65	389.47	355.46	335.55	325.00	359.11	429.16
충북	229.66	434.31	289.30	238.33	191.28	191.17	172.48
충남	492.62	312.10	352.29	281.44	279.83	181.67	189.62
전북	538.75	571.43	477.87	358.38	289.36	358.99	362.19
전남	1019.02	575.38	566.30	562.31	681.32	465.38	383.83
경북	333.31	320.65	283.47	252.33	190.97	201.97	186.18
경남	269.32	246.26	256.55	179.11	220.32	195.25	257.10
제주	424.25	269.96	372.00	329.27	286.24	289.10	161.83

□ 주야보호서비스

- 전체 노인 인구 10만 명 당 주야보호 서비스 종사자 항목의 경우 6년간 1인 당 평균 종사자 수에서 각 전년도 대비 2010년 12.72% 증가, 2011년 9.78% 감소, 2012년 8.60% 감소, 2013년 13.12% 증가, 2014년 2.78%증가, 2015년 15.74% 증가로 최근 3개년 증가 추세를 보임.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주야보호 서비스 종사자에 대하여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98.26명 이하인 69.42명으로 전체에서 10위를 차지함. 노인 재가복지시설 중 서울의 경우 주야보호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했을 만큼 수요가 큼. 충북의 경우에도 주야보호 서비스 종사자 지원 및 인력 보강이 필요.

<표 3-1-23> 노인 10만 명 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 주야보호서비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88.70	137.22	159.85	159.64	163.81	183.37	215.69
부산	74.65	61.48	58.85	53.37	49.42	57.82	54.80
대구	49.92	58.31	60.76	61.64	54.28	54.40	56.62
인천	39.44	31.12	31.53	25.09	24.78	29.38	37.07
광주	153.12	302.78	140.75	111.93	294.32	130.74	182.10
대전	67.46	79.08	63.36	67.14	76.34	125.63	166.74
울산	98.23	53.39	77.05	67.65	53.54	55.15	49.42
세종				34.86	50.12	85.06	129.47
경기	89.62	89.00	86.81	85.44	76.95	102.49	105.62
강원	64.45	90.52	87.90	74.47	68.93	83.05	113.12
충북	64.10	81.19	70.18	78.05	71.11	77.95	69.42
충남	46.47	30.79	38.09	61.00	47.47	53.03	53.34
전북	95.79	86.15	101.06	97.83	94.32	116.16	137.02
전남	100.04	84.92	78.29	71.48	85.17	85.06	82.94
경북	44.15	47.04	44.06	46.63	46.64	45.43	53.58
경남	54.76	45.80	50.06	38.33	43.55	48.37	52.80
제주	125.93	137.85	129.51	106.68	103.40	110.07	110.60

□ 단기보호서비스

- 전체 노인 인구 10 만 명 당 단기보호서비스 종사자 항목의 경우 6년간 1인 당 평균 종사자 수에서 각 전년도 대비 2010년 85.79% 감소, 2011년 9.44% 감소, 2012년 34.43% 감소, 2013년 46.36% 감소, 2014 9.86% 증가, 2015 4.85% 감소를 보임. 2010년 급감한 이후 일정 수준에서 불규칙한 추세를 보임.
- 노인 인구 10 만 명 당 단기보호서비스 종사자에 대하여 서울, 경북, 전북, 충남, 인천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3.82명 이하인 2.56명으로 전체에서 7위를 차지함.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 센터로 노인이 가족과 함께 와야 한다는 단점 때문에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치매가족휴가제의 서비스의 하나로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단기보호서비스 종사자와 함께 서비스 확충이 필요함.

<표 3-1-24> 노인 10만 명 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 단기보호서비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45.74	7.98	14.64	14.74	20.49	16.76	25.59
부산	20.69	1.00	0.48	-	-	1.62	-
대구	18.98	5.55	5.38	5.84	3.46	1.31	-
인천	48.30	2.52	7.58	8.99	6.37	7.34	5.11
광주	54.00	4.60	-	-	-	-	-
대전	67.46	8.45	4.42	-	-	-	-
울산	25.92	-	-	-	-	-	-
세종				46.47	-	10.01	-
경기	26.42	17.80	7.37	6.08	5.19	5.71	4.55
강원	30.84	3.09	3.00	0.83	0.40	0.39	0.38
충북	32.30	4.89	5.73	6.97	3.15	2.61	2.56
충남	21.24	1.30	3.17	3.23	2.50	6.03	5.86
전북	29.17	7.74	2.40	3.62	2.56	2.78	7.50
전남	76.48	2.56	2.53	2.18	3.74	2.34	2.04
경북	78.35	10.27	13.90	10.51	6.85	5.33	10.42
경남	35.45	3.09	3.50	0.96	2.32	1.11	0.86
제주	17.99	8.62	6.89	5.27	5.04	4.84	-

□ 방문목욕서비스

- 전체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방문목욕서비스 종사자 수 항목의 경우 6년간 1인당 평균 종사자 수에서 각 전년도 대비 2010년 8.78% 증가, 2011년 3.75% 증가, 2012년 27.20% 감소, 2013년 9.81% 감소, 2014년 32.67% 감소, 2015년 11.06% 감소로 2012년 이래 감소 추세를 보임.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방문목욕서비스 종사자 수에 대하여 광주, 전남, 대전, 인천, 경남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74.88명에서 크게 부족한 11.92명으로 전체에서 17위를 차지함. 충북 총 노인 인구 234813인을 28인의 방문목욕서비스 종사자가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각종 기업 및 봉사단체에서 비정기적으로 방문목욕봉사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꾸준한 지원을 위해서는 종사자 충원이 요구 됨.

<표 3-1-25> 노인 10만 명 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 방문목욕서비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60.17	152.68	85.19	119.57	69.55	63.68	59.96
부산	57.36	105.53	57.65	35.73	26.96	35.98	39.45
대구	70.97	44.43	174.59	117.09	103.72	91.76	27.52
인천	389.04	335.57	247.88	217.55	149.04	166.59	106.42
광주	593.96	1031.76	821.05	442.20	657.12	392.85	304.71
대전	58.63	208.84	429.50	251.09	201.79	101.76	117.20
울산	-	-	49.71	135.30	78.67	18.38	46.51
세종				-	-	30.02	26.79
경기	162.87	156.78	137.53	145.52	85.15	110.18	55.58
강원	108.64	151.46	109.34	99.30	61.31	35.87	65.35
충북	60.07	189.28	115.05	85.02	72.01	23.51	11.92
충남	252.62	142.28	132.98	104.25	43.72	27.72	43.67
전북	101.56	57.32	89.07	65.22	36.45	64.57	43.48
전남	442.62	239.95	292.41	242.82	244.28	133.45	141.13
경북	81.27	16.95	118.05	105.14	112.51	31.56	53.58
경남	77.25	76.94	46.55	37.12	42.16	34.39	72.63
제주	182.89	27.28	140.53	154.10	141.23	68.95	57.05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노인 인구 10 만 명 당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에 대하여 충북은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21.65명 이상인 40.03명으로 전체에서 4위를 차지함. 노인 가정으로 방문해 편의를 제공하는 재가보인 복지서비스는 노인들의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실현하고 의식주 해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어 중요한 만큼 종사자들의 지원을 늘려 증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3-1-26> 노인 10만 명 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8.77	30.98	17.87	41.19	22.11	47.56	7.00	40.66	23.08	24.82	4.65	35.50	89.60	30.83	53.03	34.23	3.95
2013	1.12	6.63	26.97	15.58	57.94	4.65	19.67	-	21.08	34.46	11.25	26.86	4.48	0.80	9.95	59.08	3.78
2014	2.70	11.52	53.75	44.07	12.45	3.77	37.79	-	6.82	49.91	48.77	16.57	6.80	19.77	11.73	13.76	3.63
2015	6.97	22.15	58.52	28.44	11.42	7.25	44.57	-	17.82	16.05	40.03	24.32	11.69	2.04	25.64	51.08	-

(5) 노인 10만 명 당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종사자 수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전체 노인 10 만 명당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종사자 수 항목의 경우 충북이 38.33명으로 1위를 차지함.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16.45명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고령화 추세에 맞게 국내에서 최상위에 위치함. 충북에서 개발 된 9988행복지킴이 프로그램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노인 복지 인력 충원이 가능해 전국적으로 성공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이기에 홍보 및 지원 확대 필요함.

<표 3-1-27> 노인 10만 명 당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종사자 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5	2.77	20.21	12.65	5.11	18.03	22.96	28.10	-	9.93	37.83	38.33	9.96	24.59	8.42	15.22	11.64	13.97

(6) 전체 사회복지사 대비 재가부문 사회복지사 비율

□ 재가부문 사회복지사

- 전체 사회복지사 대비 재가부문 사회복지사 비율 항목의 경우 6년간 평균 비율에서 각 전년도 대비 2011년 1.38% 증가, 2012년 9.14% 감소, 2013년 4.57% 증가 2014년 9.96% 증가, 2015년 1.32% 증가로 2012년을 제외하고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59.39% 이하인 48.27%로 전체에서 16위를 차지함.

<표 3-1-28> 전체 사회복지사 대비 재가부문 사회복지사 비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71.44	72.43	65.81	68.81	75.67	76.67
부산	70.47	70.22	58.97	59.76	67.79	71.02
대구	75.23	66.86	55.34	53.09	60.16	61.26
인천	56.99	54.09	42.86	44.42	52.01	52.98
광주	74.63	72.64	65.85	65.17	71.70	72.19
대전	74.21	63.54	51.12	52.51	61.68	64.30
울산	66.34	68.55	69.23	67.37	65.35	64.78
세종	-	-	27.27	9.09	50.00	52.00
경기	56.52	53.02	42.11	42.76	49.96	53.30
강원	55.60	58.19	45.93	48.12	53.72	54.86
충북	53.36	47.14	37.09	37.31	46.73	48.27
충남	65.67	61.25	51.10	46.40	55.05	56.53
전북	63.19	60.53	49.88	50.84	58.72	63.17
전남	56.32	56.63	47.09	50.12	56.04	57.87
경북	58.55	56.92	45.54	45.71	54.49	57.93
경남	61.27	59.96	49.32	50.61	58.38	59.80
제주	58.04	53.39	39.52	34.46	42.65	42.69

2. 장애인복지

1) 시설 환경

□ 장애인 인구 현황

- 본 보고서의 지표 산출 기준이 되는 등록장애인 수는 2009년 2,429,547명으로 전체 인구 49,773,145명의 4.9%에 해당함. 2014년의 경우도 전체인구는 51,327,916명으로 증가하지만 장애인 비율은 4.9%로 변동이 없음.

<표 3-2-1> 지표 산출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별 등록 장애인 수

	2009		2012		2014	
	장애인 수	비율	장애인 수	비율	장애인 수	비율
서울	401,638	16.5	407,528	16.2	398,908	16.0
부산	168,493	6.9	170,743	6.8	168,663	6.8
대구	113,509	4.7	116,839	4.7	115,983	4.6
인천	126,878	5.2	133,467	5.3	133,855	5.4
광주	66,191	2.7	68,534	2.7	68,288	2.7
대전	68,884	2.8	71,647	2.9	71,198	2.9
울산	47,210	1.9	48,982	2.0	49,014	2.0
세종	-	-	7,081	0.3	7,943	0.3
경기	477,021	19.6	505,519	20.1	508,330	20.4
강원	97,604	4.0	100,579	4.0	98,970	4.0
충북	90,958	3.7	94,137	3.7	93,612	3.8
충남	125,556	5.2	124,872	5.0	124,721	5.0
전북	130,807	5.4	133,054	5.3	130,932	5.2
전남	144,039	5.9	145,788	5.8	143,128	5.7
경북	164,885	6.8	169,699	6.8	168,650	6.8
경남	175,198	7.2	180,285	7.2	179,276	7.2
제주	30,676	1.3	32,405	1.3	32,989	1.3
소계	2,429,547	100.0	2,511,159	100.0	2,494,460	100.0
총 인구	49,773,145		50,948,272		51,327,916	
장애인구 비율	4.9%		4.9%		4.9%	

출처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stat.mohw.go.kr)

(1) 장애인거주시설³⁾

□ 장애인거주시설 수

-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함.
-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함.
- 2014년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은 모두 1,457개소가 있으며, 이 중 58.3%인 850개소가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임. 2012년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지역사회재활시설로 포함되어 있던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거주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이후 거주시설의 수가 증가함.
- 장애인거주시설의 총 개소 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설별로 차이가 있음. 즉, 지체장애인시설, 시각장애인시설, 청각장애인시설의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상대적으로 독립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지적장애인 대상의 생활시설 시설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09년 172개소에서 2014년 309개소).
- 거주 현원의 수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인 시설은 2009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적장애인 시설은 2009년 9,539명에서 12,136명으로 두드러진 증가폭을 보이고 있음. 이 외에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거주 서비스 신규 수요에 대비하여 소규모 시설의 확충을 강조하게 되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1) 장애인 복지 시설의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에 따라 이용조건이 상이하므로 각 장애유형별로 시설 및 조직 환경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구의 물리적 한계를 인정하여 본 보고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시설을 기준으로 보편적인 환경을 기준으로 작성함.

-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굳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각·청각 장애인들의 시설입소가 줄어든 결과이며, 대규모 시설보다는 소규모 시설의 이용희망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2-2> 장애유형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2009		2012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지체장애	38	2,230	40	2,057	44	2,208
시각장애	14	760	16	786	15	632
청각장애	11	519	8	335	7	270
지적장애	172	9,539	278	11,748	309	12,136
중증장애	153	9,728	201	11,006	223	11,344
장애영유아	9	467	10	510	9	466
단기	-		128	1,438	137	1,495
공동생활가정	-		667	2,760	713	2,855
합계	397	23,243	1,348	30,640	1,457	31,406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0, 2013, 2016.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수

○ 1~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33개소가 운영 중임 총복은 12개소로 전국의 5.2%를 차지함. 이는 2009년 10개소에서 2012년 12개소로 2개소 늘어난 것이지만 이후 유지되고 있음. 최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등의 형태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임.

<표 3-2-3>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수

	2009		2012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19	12.4	22	10.9	22	9.4
부산	4	2.6	6	3.0	7	3.0
대구	6	3.9	9	4.5	8	3.4
인천	8	5.2	11	5.5	12	5.2
광주	2	1.3	2	1.0	3	1.3
대전	4	2.6	8	4.0	11	4.7
울산	5	3.3	5	2.5	9	3.9
세종	-	-	1	0.5	1	0.4
경기	33	21.6	43	21.4	50	21.5
강원	9	5.9	11	5.5	15	6.4
총복	10	6.5	12	6.0	12	5.2
충남	12	7.8	15	7.5	16	6.9
전북	9	5.9	11	5.5	10	4.3
전남	3	2.0	4	2.0	6	2.6
경북	14	9.2	23	11.4	29	12.4
경남	9	5.9	12	6.0	16	6.9
제주	6	3.9	6	3.0	6	2.6
소계	153	100	201	100	233	100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0, 2013, 2016.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수

- 장애영유아의 경우 현재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장애아동·청소년들이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통합되어 생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아동의 경우 특성상 장애 유형에 따른 재활 등 특수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므로 아동복지시설 기준의 인력 구조로는 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별도의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음. 전국적으로 10개소가 운영 중이나 총북의 경우 장애영유아를 전담하는 거주시설이 없음.

<표 3-2-4>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수

	2009		2012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2	22.2	2	20.0	2	20.0
부산	2	22.2	2	20.0	2	20.0
대구	1	11.1	1	10.0	2	20.0
인천	1	11.1	1	10.0	1	10.0
광주	-	-	-	-	-	-
대전	1	11.1	1	10.0	-	-
울산	-	-	-	-	-	-
세종	-	-	-	-	-	-
경기	1	11.1	1	10.0	1	10.0
강원	-	-	-	-	-	-
총북	-	-	-	-	-	-
충남	-	-	-	-	-	-
전북	1	11.1	1	10.0	1	10.0
전남	-	-	-	-	-	-
경북	-	-	-	-	-	-
경남	-	-	1	10.0	1	10.0
제주	-	-	-	-	-	-
소계	9	100	10	100	10	100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0, 2013, 2016.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수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은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9년 전국적으로 91개소가 운영되었으나 2012년 107개소, 2015년 141개소로 증가 함. 충북의 경우 2009년 2개소에서 2015년 3개소로 큰 변화가 없으며 전국적인 증가추세에 비해 시설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율은 2012년 2.8%에서 2.1%로 점유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반면 경기, 충남, 경북 등은 단기거주시설이 증가하여 보호서비스가 다양화되어지고 있음.

<표 3-2-5>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수

	2009		2012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26	28.6	36	33.6	40	28.4
부산	1	1.1	2	1.9	2	1.4
대구	-	-	2	1.9	4	2.8
인천	3	3.3	5	4.7	5	3.5
광주	-	-	1	0.9	3	2.1
대전	4	4.4	9	8.4	12	8.5
울산	5	5.5	6	5.6	5	3.5
세종	-	-	-	-	-	-
경기	18	19.8	6	5.6	25	17.7
강원	7	7.7	7	6.5	6	4.3
충북	2	2.2	3	2.8	3	2.1
충남	4	4.4	4	3.7	8	5.7
전북	2	2.2	2	1.9	2	1.4
전남	3	3.3	3	2.8	3	2.1
경북	6	6.6	9	8.4	10	7.1
경남	7	7.7	8	7.5	9	6.4
제주	3	3.3	4	3.7	4	2.8
소계	91	100	107	100	141	100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0, 2013, 2016.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수

○ 최근 가장 큰 증가를 보이는 장애인거주시설은 공동생활가정임. 전국적으로 717개소가 운영 중이며 총복은 이의 4.7%인 34개소 운영 중임. 2009년 21개소에 비해 13개소나 늘어나 매우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앞서 단기거주시설 보호가 증가했던 경기, 충남, 경북 등의 경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증가되지 않아 지역별로 거주시설 운영방법에 있어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지역 여건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보호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음.

<표 3-2-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수

	2009		2012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152	28.6	183	27.4	201	28.0
부산	35	6.6	39	5.8	41	5.7
대구	17	3.2	26	3.9	26	3.6
인천	32	6.0	40	6.0	42	5.9
광주	15	2.8	21	3.1	39	5.4
대전	22	4.1	30	4.5	33	4.6
울산	9	1.7	10	1.5	9	1.3
세종	-	-	-	-	-	-
경기	119	22.4	137	20.5	137	19.1
강원	18	3.4	27	4.0	27	3.8
총복	21	4.0	28	4.2	34	4.7
충남	10	1.9	18	2.7	17	2.4
전북	16	3.0	20	3.0	19	2.6
전남	4	0.8	10	1.5	10	1.4
경북	16	3.0	19	2.8	17	2.4
경남	38	7.2	47	7.0	50	7.0
제주	7	1.3	12	1.8	15	2.1
소계	531	100	667	100	717	100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0, 2013, 2016.

(2)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수

-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5년 현재, 전국적으로 224개소가 운영 중이며 중복은 12개소가 운영 중임. 전국적인 점유율은 2009년 8개소 4.3%에서 2015년 12개소 5.4%로 약간 증가함. 광역 자치단체와 비교해서는 경기, 경북 등과 함께 장애인복지관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3-2-7> 장애인 복지관 수

	2009		2012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43	23.2	44	21.5	45	20.1
부산	11	5.9	14	6.8	14	6.3
대구	6	3.2	6	2.9	6	2.7
인천	8	4.3	8	3.9	9	4.0
광주	4	2.2	5	2.4	7	3.1
대전	5	2.7	5	2.4	4	1.8
울산	3	1.6	3	1.5	4	1.8
세종	-	-	1	0.5	1	0.4
경기	20	10.8	27	13.2	31	13.8
강원	10	5.4	10	4.9	10	4.5
총복	8	4.3	9	4.4	12	5.4
충남	11	5.9	14	6.8	14	6.3
전북	10	5.4	11	5.4	12	5.4
전남	12	6.5	15	7.3	16	7.1
경북	12	6.5	12	5.9	19	8.5
경남	17	9.2	16	7.8	15	6.7
제주	5	2.7	5	2.4	5	2.2
소계	185	100	205	100	224	100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0, 2013, 2016.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수

○ 장애인이 낮동안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전국적으로도 2009년 395개소에서 2012년 526개소, 2015년 625개소로 6년 간 230개소가 늘어나는 등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보임. 충북의 경우도 2009년 10개소에서 2015년 15개소로 증가함.

<표 3-2-8>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수

	2009		2012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90	22.8	106	20.2	119	19.0
부산	37	9.4	50	9.5	53	8.5
대구	26	6.6	32	6.1	39	6.2
인천	21	5.3	26	4.9	32	5.1
광주	10	2.5	20	3.8	28	4.5
대전	19	4.8	30	5.7	38	6.1
울산	16	4.1	25	4.8	32	5.1
세종	-	-	-	-	1	0.2
경기	63	15.9	86	16.3	103	16.5
강원	12	3.0	14	2.7	15	2.4
충북	10	2.5	15	2.9	15	2.4
충남	8	2.0	10	1.9	10	1.6
전북	17	4.3	24	4.6	26	4.2
전남	15	3.8	23	4.4	24	3.8
경북	21	5.3	23	4.4	29	4.6
경남	19	4.8	29	5.5	46	7.4
제주	11	2.8	13	2.5	15	2.4
소계	395	100	526	100	625	100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0, 2013, 2016.

□ 장애인 체육시설 수

○ 장애인 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30개소가 운영 중임. 지역별로 체육시설의 환경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충북은 1개소로 '충북곰두리체육관'이 운영 중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제주의 경우 장애인 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은 2~3개소씩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의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편임. 충북의 경우 청주시에 1개소가 운영되어 청주시 이외 지역의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표 3-2-9> 장애인 체육시설 수

	2009		2012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6	22.2	5	17.9	6	20.2
부산	2	7.4	2	7.1	1	3.3
대구	2	7.4	2	7.1	2	6.7
인천	1	3.7	1	3.6	1	3.3
광주	1	3.7	1	3.6	-	-
대전	3	11.1	3	10.7	2	6.7
울산	1	3.7	1	3.6	2	6.7
세종	-	-	-	-	-	-
경기	2	7.4	3	10.7	4	13.3
강원	-	-	-	-	-	-
충북	1	3.7	1	3.6	1	3.3
충남	2	7.4	2	7.1	-	-
전북	1	3.7	1	3.6	3	10.0
전남	1	3.7	1	3.6	2	6.7
경북	3	11.1	3	10.7	4	13.3
경남	1	3.7	2	7.1	2	6.7
제주	-	-	-	-	-	-
소계	27	100	28	100	30	100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0, 2013, 2016.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함. 또한, 이용자격을 시각장애인에서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와 12개의 차고지 운영을 통해 2015년 153대의 차량을 운영하는 체제임. 현재는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수준으로 차량 이용요금을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음. 충북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시군단위로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개소 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3-2-10>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

	시각장애인 수(2015)	2009		2012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42,533	1	0.6	1	0.6	1(광역)	0.6
부산	18,244	2	1.3	1	0.6	1(광역)	0.6
대구	12,198	1	0.6	1	0.6	1(광역)	0.6
인천	13,700	1	0.6	1	0.6	1(광역)	0.6
광주	7,276	2	1.3	2	1.3	1(광역)	0.6
대전	7,216	1	0.6	1	0.6	1(광역)	0.6
울산	5,001	1	0.6	1	0.6	1(광역)	0.6
세종	917	-	-	1	0.6	1(광역)	0.6
경기	50,868	31	20.1	31	19.9	31	19.9
강원	9,408	19	12.3	19	12.2	19	12.2
충북	8,979	9	5.8	10	6.4	11	7.1
충남	12,097	16	10.4	15	9.6	15	9.6
전북	11,868	15	9.7	15	9.6	15	9.6
전남	14,500	10	6.5	12	7.7	13	8.3
경북	16,785	24	15.6	24	15.4	24	15.4
경남	17,051	20	13.0	20	12.8	19	12.2
제주	4,233	1	0.6	1	0.6	1	0.6
소계	252,874	154	100	156	100	156	100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0, 2013, 2016.

□ 청각장애인 1인당 수화통역센터 수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는 전국적으로 193개소가 운영 중임. 2009년 162개소에 비해 많이 증가한 수치이지만 수화통역센터 1개소당 이용가능인원은 높게 나타남. 즉, 전국적으로 청각장애인 1,297명 당 1개소씩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총북은 974명 당 1개소로 비교적 전국평균보다 낮아 이용환경이 그나마 나은 것으로 분석됨.

<표 3-2-11> 청각장애인 1인당 수화통역센터 수

	청각장애인 수(2015)	2009		2012		2015		1개소당 인원(순위)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39,598	19	11.7	25	13.1	26	13.5	1,523(7)
부산	13,847	6	3.7	6	3.1	5	2.6	2,769(6)
대구	11,317	3	1.9	4	2.1	4	2.1	2,829(5)
인천	12,999	1	0.6	1	0.5	1	0.5	12,999(1)
광주	8,088	3	1.9	5	2.6	1	0.5	8,088(2)
대전	7,159	4	2.5	5	2.6	5	2.6	1,432(9)
울산	6,072	1	0.6	1	0.5	1	0.5	6,072(3)
세종	950	-	-	1	0.5	1	0.5	950(12)
경기	47,169	29	17.9	30	15.7	31	16.1	1,522(8)
강원	10,700	17	10.5	17	8.9	18	9.3	594(17)
총북	9,738	7	4.3	9	4.7	10	5.2	974(10)
충남	13,537	16	9.9	15	7.9	15	7.8	902(14)
전북	13,100	12	7.4	13	6.8	15	7.8	873(15)
전남	16,405	11	6.8	16	8.4	17	8.8	965(11)
경북	18,600	18	11.1	24	12.6	24	12.4	775(16)
경남	16,691	14	8.6	18	9.4	18	9.3	927(13)
제주	4,364	1	0.6	1	0.5	1	0.5	4,364(4)
소계	250,334	162	100	191	100	193	100	1,297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0, 2013, 2016.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인원 및 이용 금액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에 의거 인정 점수가 220점 이상일 때 선정되며, 각 등급별·소득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함.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임.
- 서비스 내용은 크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이루어지며 활동지원은 신체활동 및 가사,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는 가정방문하여 목욕 및 간호, 구강위생 등을 수행함.
- 또한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대상자 가운데 최중증 독거가구나 중증독거가구, 가구원이 중증장애인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인 취약가구, 출산한 임산부가 있는 가구,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가구, 학교·직장생활을 수행하는 가구의 경우 기본급여 이외에 추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의 월별 이용자 수 및 급여액은 매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의 시도별 이용자 수를 살펴 본 결과 2015년 1월 기준 서울시가 11,5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0,688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음. 이에 따라 이용액도 서울시가 12,809,712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1,089,501천 원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음.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의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4년 2월 기준 48,786명에서 2015년 1월 현재 54,091명으로 증가함. 이용액 역시 49,057,965천 원에서 56,847,543천 원으로 증가함.
- 충북의 경우도 2014년 2월 1,504명에서 2015년 1월 기준 1,654명으로 1년여 만에 10%가 증가함. 이용금액도 1,481,424천 원에서 1,727,417천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표 3-2-1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인원 및 이용 금액 (단위: 명, 천 원)

	2014. 2.		2014. 8.		2015. 1.	
	이용자 수	이용금액	이용자 수	이용금액	이용자 수	이용금액
서울	10,614	11,287,482	11,250	12,216,680	11,574	12,809,712
부산	3,846	4,305,556	4,118	4,716,781	4,230	4,931,522
대구	2,680	2,902,176	2,834	3,154,584	2,915	3,279,740
인천	2,952	3,129,271	3,113	3,411,057	3,259	3,672,606
광주	2,240	2,216,779	2,399	2,410,495	2,494	2,501,409
대전	2,119	2,354,304	2,294	2,613,728	2,389	2,758,196
울산	636	558,071	666	609,052	719	667,442
세종	85	66,678	109	93,280	124	109,191
경기	9,349	9,240,920	10,277	10,413,271	10,688	11,089,501
강원	1,272	1,147,250	1,388	1,323,366	1,425	1,395,231
충북	1,504	1,491,424	1,596	1,632,882	1,654	1,727,417
충남	1,752	1,607,303	1,961	1,806,885	2,032	1,898,696
전북	2,049	1,793,528	2,220	2,019,025	2,301	2,147,096
전남	3,322	2,827,659	3,447	2,993,163	3,538	3,146,337
경북	1,993	1,784,170	2,108	1,970,981	2,179	2,067,471
경남	1,719	1,711,776	1,817	1,862,677	1,866	1,945,513
제주	654	633,617	677	687,737	704	700,462
합계	48,786	49,057,965	52,274	53,935,643	54,091	56,847,543

*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5.

□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인원

-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련 연간 급여액과 본인부담금을 산정함.
-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은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이며, 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공함. 이의 목적은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음.
- 대상자 선정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이며, 장애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됨.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음.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며 발달재활서비스는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됨.
- 2014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의 이용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2월부터 완만한 증가를 보임. 12월을 기준으로 지역별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1,5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7,784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았음. 반면, 제주와 울산이 각각 1,006명, 988명으로 세종시를 제외하고 이용자 수가 타 지역보다 적었음.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자 수는 12월 기준 전체 50,769명 중에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초과~100% 이하'가 17,67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2015년은 2014년 12월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으나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감소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총복은 연간 매달 1,745명의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음.

<표 3-2-13>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인원

	2014			2015. 1.
	2월	7월	12월	
서울	7,302	8,057	7,784	7,598
부산	2,974	3,255	3,294	3,227
대구	2,836	2,931	2,856	2,813
인천	2,551	2,778	2,801	2,769
광주	1,759	1,998	2,043	1,989
대전	1,680	1,921	2,033	1,989
울산	973	981	988	951
세종	79	121	128	129
경기	10,059	11,332	11,536	11,326
강원	1,409	1,539	1,582	1,568
충북	1,500	1,723	1,792	1,745
충남	1,667	1,853	1,868	1,798
전북	2,818	3,134	3,194	3,115
전남	3,192	3,465	3,319	3,248
경북	1,937	2,059	2,201	2,159
경남	2,289	2,415	2,344	2,304
제주	1,000	947	1,006	981
소계	46,025	50,509	50,769	49,709

*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5.

③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우선, 근로작업장은 근로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있음. 이 외에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의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과 현재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면 재활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근로작업장과 달리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의 이동을 돕고 있음.
- 근로작업장의 경우 당해 연도 근로장애인의 개인별 평균임금을 확인한 결과, 시설 설치·운영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근로장애인의 급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년도부터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변경 신고하도록 지도하고 관리운영비도 장애인보호작업장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작업장이 보호작업장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시설 통계를 제시하고자 함.

참고)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수 등 운영 현황을 확인하여 6개월간 지속적으로 최소인원(30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작업장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전국적으로 560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이는 2009년 386개소에서 174개소가 늘어나 50%이상 시설이 증가한 것으로 이 중 중복은 22개소로 전국적으로 3.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충북도 2009년 13개소에서

2015년 22개소로 9개소가 증가함.

<표 3-2-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

	2009		2012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91	23.6	111	23.2	120	21.4
부산	18	4.7	22	4.6	30	5.4
대구	22	5.7	32	6.7	37	6.6
인천	21	5.4	28	5.9	28	5.0
광주	13	3.4	17	3.6	21	3.8
대전	10	2.6	14	2.9	15	2.7
울산	14	3.6	12	2.5	14	2.5
세종	-	-	1	0.2	3	0.5
경기	62	16.1	68	14.2	93	16.6
강원	30	7.8	33	6.9	33	5.9
충북	13	3.4	16	3.3	22	3.9
충남	13	3.4	15	3.1	16	2.9
전북	13	3.4	17	3.6	19	3.4
전남	11	2.8	15	3.1	17	3.0
경북	25	6.5	31	6.5	37	6.6
경남	23	6.0	37	7.7	46	8.2
제주	7	1.8	9	1.9	9	1.6
소계	386	100	478	100	560	100

*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을 모두 포함한 숫자임.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0, 2013, 2016.

④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수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품과 서비스·용역의 마케팅 및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은 광역단위에 1개소씩 운영되고 있음. 충북의 경우도 청주시에 운영되고 있음.

<표 3-2-15>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수

	2009		2012		2014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1	6.3	1	6.3	1	5.9
부산	1	6.3	1	6.3	1	5.9
대구	1	6.3	1	6.3	1	5.9
인천	1	6.3	1	6.3	1	5.9
광주	1	6.3	1	6.3	1	5.9
대전	1	6.3	1	6.3	1	5.9
울산	1	6.3	1	6.3	1	5.9
세종	-	-	-	-	1	5.9
경기	1	6.3	1	6.3	1	5.9
강원	1	6.3	1	6.3	1	5.9
충북	1	6.3	1	6.3	1	5.9
충남	1	6.3	1	6.3	1	5.9
전북	1	6.3	1	6.3	1	5.9
전남	1	6.3	1	6.3	1	5.9
경북	1	6.3	1	6.3	1	5.9
경남	1	6.3	1	6.3	1	5.9
제주	1	6.3	1	6.3	1	5.9
소계	16	100	16	100	17	100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백서」 2010, 2013, 2015.

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수

○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전국에 18개소가 운영 중임. 충북은 1개소 운영되고 있음.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전북 등의 지역은 의료재활시설이 운영되지 않음.

<표 3-2-16>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수

	2009		2012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4	22.2	4	22.2	4	22.2
부산	1	5.6	1	5.6	1	5.6
대구	1	5.6	1	5.6	1	5.6
인천	2	11.1	2	11.1	2	11.1
광주	-	-	-	-	-	-
대전	2	11.1	2	11.1	2	11.1
울산	-	-	-	-	-	-
세종	-	-	-	-	-	-
경기	-	-	-	-	-	-
강원	1	5.6	1	5.6	1	5.6
충북	1	5.6	1	5.6	1	5.6
충남	1	5.6	1	5.6	1	5.6
전북	-	-	-	-	-	-
전남	1	5.6	1	5.6	1	5.6
경북	1	5.6	1	5.6	1	5.6
경남	2	11.1	2	11.1	2	11.1
제주	1	5.6	1	5.6	1	5.6
소계	18	100	18	100	18	100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0, 2016.

2) 조직 및 인적자원

(1) 교육 부문

□ 장애인 특수학교 수

- 장애인의 교육을 전담하는 장애인 특수학교는 전국에 167개소가 운영 중임.
총복은 9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등에 설치되어 있음.

<표 3-2-17> 장애인 특수학교 수

	2009		2012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29	19.3	29	18.6	29	17.4
부산	13	8.7	13	8.3	15	9.0
대구	8	5.3	8	5.1	9	5.4
인천	7	4.7	7	4.5	7	4.2
광주	5	3.3	4	2.6	5	3.0
대전	4	2.7	5	3.2	5	3.0
울산	3	2.0	3	1.9	4	2.4
세종	-	-	-	-	-	-
경기	26	17.3	29	18.0	32	19.2
강원	7	4.7	7	4.5	7	4.2
총복	9	6.0	9	5.8	9	5.4
충남	6	4.0	6	3.8	6	3.6
전북	9	6.0	11	7.1	11	6.6
전남	7	4.7	7	4.5	8	4.8
경북	7	4.7	7	4.5	8	4.8
경남	7	4.7	8	5.1	9	5.4
제주	3	2.0	3	1.9	3	1.8
소계	150	100	156	100	167	100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09, 2012, 2015.

□ 장애인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장애인 특수학교를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5,531명으로 나타남. 서울시가 18.2%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7.1%로 나타남. 충북은 1,332명으로 전체의 5.2%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냄. 특히,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와 경남, 경북 지역 다음으로 나타남.

<표 3-2-18> 장애인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2009		2012		2015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서울	4,983	21.1	4,828	19.5	4,646	18.2
부산	1,714	7.3	1,668	6.7	1,879	7.4
대구	1,402	5.9	1,462	5.9	1,512	5.9
인천	1,113	4.7	1,333	5.4	1,342	5.3
광주	917	3.9	964	3.9	995	3.9
대전	790	3.3	944	3.8	1,031	4.0
울산	540	2.3	593	2.4	727	2.8
세종	-	-	-	-	-	-
경기	3,687	15.6	3,935	15.9	4,377	17.1
강원	980	4.2	1,040	4.2	941	3.7
충북	1,334	5.7	1,351	5.5	1,332	5.2
충남	938	4.0	1,024	4.1	899	3.5
전북	1,102	4.7	1,311	5.3	1,289	5.0
전남	907	3.8	853	3.5	1,036	4.1
경북	1,429	6.1	1,464	5.9	1,519	5.9
경남	1,335	5.7	1,494	6.0	1,578	6.2
제주	435	1.8	456	1.8	428	1.7
소계	23,606	100	24,720	100	25,531	100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09, 2012, 2015.

(2) 고용 부문

□ 지역별 장애인 임금근로자 추정 수 및 비율

- 지역별 장애인 임금근로자 수는 지역별 통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복지패널조사를 참고함. 수도권과 광역시권, 기타 시·도에 따른 분류에서 총복이 속해 있는 ‘기타시도’의 경우 2009년 32.2%의 장애인고용률이 2015년 42.3%로 상승하여 장애인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이나 광역시권은 2009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

<표 3-2-19> 장애인 임금근로자 추정 수 및 비율

지역별	2009		2012		2015. 5	
	추정수 (명)	비율 (%)	추정수 (명)	비율 (%)	추정수 (명)	비율 (%)
계	540,499	100.0	564,919	100.0	849,517	100.0
수도권	262,454	48.6	264,189	46.8	348,191	41.0
광역시권	104,002	19.2	107,296	19.0	141,931	16.7
기타시도	174,044	32.2	193,434	34.2	359,395	42.3

*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의미함(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인구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 시도”에 편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패널 조사, 각 연도 및 2015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 장애인 의무고용률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임.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도 및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 정책은 의무고용제로 대표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의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가짐. 우리나라의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은 부문별

로 차이가 있는데, 현재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공무원은 3.0%, 근로자는 2.7%, 공공기관은 3%(기타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3.0% 적용), 민간 기업은 2.7%가 적용되고 있음(보건복지통계포털 지표설명 참고).

- 2014년 12월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를 적용받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체는 총 27,488개소이며,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 및 상시근로자는 7,570만여 명이고,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158,388명으로 고용률은 2.54%임. 장애인 고용률은 2008년 1.73%, 2009년 1.87%, 2010년 2.24%, 2011년 2.28%, 2012년 2.35%, 2013년 2.48%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정부부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장애인 비율은 2.91%로 의무고용률보다 낮으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3.75%로 의무고용률 기준보다 높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91%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2.45%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임. 민간기업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차이가 있는데, 300~499인 기업의 고용률은 2.25%였으며, 100~299인 기업은 2.87%이었고, 100인 미만의 경우는 2.50%였음.
-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각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률은 2.54%로 전년도 2.48%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아직 정부부문의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의무 고용률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표 3-2-20> 장애인 의무고용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87	2.24	2.28	2.35	2.48	2.54
정부부문	1.97	2.38	2.48	2.61	2.85	2.91
(정부부문) 공무원	-	2.40	2.52	2.57	2.63	2.65
(정부부문) 공무원 아닌 근로자	-	2.36	2.35	2.75	3.51	3.75
공공기관	2.11	2.56	2.72	2.80	2.81	2.91
민간기업	1.84	2.19	2.22	2.27	2.39	2.45

* data.kihasa.re.kr.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각 연도.

□ 장애인 고용률 1 : 전체

- 적용 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 근로자 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2009년에는 제주, 인천, 강원 순이었으나 2014년은 제주, 광주, 강원 순으로 나타남. 충북의 경우 전체 고용률은 2.86으로 전국 평균 2.53보다는 약간 높지만 17개 광역시도 중 10위 권에 머물고 있음.

<표 3-2-21> 장애인 고용률

	2009		2012		2014	
	고용률	순위	고용률	순위	고용률	순위
서울	1.60	16	2.06	17	2.26	17
부산	2.42	5	2.94	5	3.20	5
대구	2.21	7	2.62	8	3.02	7
인천	2.55	2	3.01	2	3.08	6
광주	2.29	6	2.97	4	3.37	2
대전	2.20	8	2.70	7	2.87	9
울산	2.16	9	2.47	10	2.52	13
세종	-		2.35	15	2.69	11
경기	1.96	12	2.30	16	2.46	16
강원	2.46	3	3.00	3	3.32	3
충북	2.01	11	2.55	9	2.86	10
충남	1.78	15	2.36	13	2.51	14
전북	2.44	4	2.90	6	3.30	4
전남	2.04	10	2.37	12	2.90	8
경북	1.96	13	2.42	11	2.58	12
경남	1.95	14	2.35	14	2.48	15
제주	2.59	1	3.35	1	3.42	1
소계	1.86		2.32		2.53	

* 장애인고용률 : 장애인근로자수/적용대상근로자수*100

* 통계청(<http://kosis.kr/>). 원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률 참조

□ 장애인 고용률 2 : 2015년 장애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 2015년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고용률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전국 평균 34.8%에 비해 충북은 39.0%로 약간 상회함. 15세 이상 인구 91,847명 중 35,848명이 취업한 것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으로 46.3%에 이르고, 울산이 46.2%, 경남이 43.5% 등으로 나타남. 충북이 그 다음으로 전국적으로 4위의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표 3-2-22> 16개 광역시도별 장애인 취업자 수 및 고용률(15세 이상 / 2015) (단위 : 명, %)

지 역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상대표준오차
서울	390,751	122,802	249,321	31.4	0.056
부산	165,696	48,820	111,560	29.5	0.094
대구	113,455	31,460	79,351	27.7	0.100
인천	130,900	47,053	80,938	35.9	0.103
광주	66,611	15,807	49,861	23.7	0.171
대전	69,326	23,698	44,176	34.2	0.137
울산	47,904	22,146	24,447	46.2	0.119
경기	495,685	178,335	302,785	36.0	0.043
강원	97,403	27,021	66,253	27.7	0.163
충북	91,847	35,848	52,782	39.0	0.117
충남	130,421	60,444	68,374	46.3	0.085
전북	128,856	41,260	82,168	32.0	0.102
전남	141,343	51,220	86,112	36.2	0.106
경북	165,929	55,397	109,920	33.4	0.101
경남	175,957	76,475	94,804	43.5	0.084
제주	32,111	11,732	19,361	36.5	0.168
전체	2,444,194	849,517	1,522,214	34.8	0.02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보고서'

(3) 편의시설

□ 저상버스 도입비율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특수교통수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률은 감소하고 있음. 2009년은 977대가 운영되었으나 2011년 689대, 2013년 672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초기 도입된 후 사용기간이 지나 폐차 후 신규 차량을 도입하지 않기 때문임. 충북도 2009년 36대가 운영되었으나 2011년 13대, 2013년 7대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23> 저상버스 도입비율

	2009		2011		2013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서울	484	49.5	203	29.5	217	32.3
부산	25	2.6	70	10.2	70	10.4
대구	33	3.4	20	2.9	30	4.5
인천	28	2.9	27	3.9	46	6.8
광주	12	1.2	10	1.5	20	3.0
대전	11	1.1	24	3.5	30	4.5
울산	6	0.6	10	1.5	10	1.5
세종	-	-	-	-	21	3.1
경기	200	20.5	132	19.2	137	20.4
강원	18	1.8	12	1.7	34	5.1
충북	36	3.7	13	1.9	7	1.0
충남	5	0.5	11	1.6	11	1.6
전북	5	0.5	10	1.5	16	2.4
전남	10	1.0	17	2.5	5	0.7
경북	3	0.3	4	0.6	8	1.2
경남	101	10.3	126	18.3	10	1.5
제주	-	-	-	-	-	-
소계	977	100.0	689	100.0%	672	100.0%

□ 특별교통수단 도입비율

○ 2014년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2,298대로 정대수(2,692대) 대비 85.4%의 도입률을 나타냄 광역지자체 중 경상남도는 법정대수 대비 도입률이 163.7%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 24.2%로 가장 낮은 도입률을 보임. 바우처 택시는 부산광역시가 1,220대로 8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3-2-24>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2014) (단위 : 대,%,명)

구분	장애인 1.2급	법정대수	운행대수	도입률	복지택시 (바우처택시)
서울	88,780	444	446	100.5	50
부산	36,967	185	198	107.0	1,220
대구	25,735	129	103	79.8	30
인천	27,849	139	140	100.7	28
광주	15,201	76	80	105.3	12
대전	15,826	79	44	55.7	55
울산	9,838	49	32	65.3	52
세종	1,617	8	6	75.0	
경기	108,734	543	475	87.3	50
강원	21,308	108	65	60.2	
충북	20,653	103	100	97.1	
충남	26,630	134	59	44.0	12
전북	27,050	135	86	63.7	
전남	29,810	147	64	43.5	
경북	36,607	182	44	24.2	
경남	38,538	193	316	163.7	
제주	7,632	38	40	105.3	
합계	538,775	2,692	2,298	85.4	1,509

*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개인용무 수행을 위한 차량이동을 지원하는 것임.

*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2015.

□ 편의시설 설치비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은 편의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데, 대상시설은 전국적으로 14만 2천여 개이며, 설치대상 편의시설은 모두 630여 만 개임(보건복지통계포털 지표설명 참고).
- 2013년 국토해양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67.9%, 적정 설치율은 60.2%로 나타남. 적정설치율은 설치된 시설의 수준을 적정, 미흡, 미설치의 3단계로 구분하여, 이 중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을 의미함.
- 편의시설 종류별로 여러 설치 기준 중 편의시설 이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부설치 기준만을 선정하여 적용한 것이 핵심항목 기준 편의시설 설치율임. 2013년 전수조사에서 핵심항목 기준 편의시설 설치율은 72.9%(적정 설치율 62.9%와 미흡 설치율 10.0%)로 나타남.
-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음. 편의시설의 설치대상 건물과 대상 편의시설은 경기도가 가장 많고, 서울시가 그 뒤를 이었음.
- 지역별로 설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72.2%를 나타낸 대구였으며, 충북이 60.3%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음. 대체로 특·광역시권역은 설치율이 높고, 도지역은 설치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3-2-25> 편의시설 설치비율(2013)

	대상건물 수	대상편의시설 수	설치 수	설치율 (%)	적정설치 수	적정 설치율 (%)
서울	18,529	698,539	469,537	67.2	423,987	60.7
부산	9,672	445,606	318,466	71.5	293,709	65.9
대구	7,002	236,084	170,423	72.2	152,237	64.5
인천	10,450	415,069	277,264	66.8	247,923	59.7
광주	5,052	229,268	161,775	70.6	140,738	61.4
대전	3,535	109,913	78,329	71.3	70,351	64.0
울산	3,606	173,880	122,601	70.5	116,142	66.8
경기	29,541	1,326,389	923,628	69.6	827,777	62.4
강원	4,467	157,822	112,669	71.4	101,542	64.3
충북	4,927	252,523	152,183	60.3	133,251	52.8
충남	7,538	367,452	237,977	64.8	201,350	54.8
전북	7,159	333,595	227,433	68.2	202,147	60.6
전남	7,553	404,951	260,484	64.3	209,999	51.9
경북	10,270	515,110	334,029	64.8	286,019	55.5
경남	9,351	493,597	333,975	67.7	293,858	59.5
제주	2,921	145,576	102,906	70.7	94,118	64.7
소계	141,573	6,305,374	4,283,679	67.9	3,795,148	60.2

* <https://data.kihasa.re.kr/>

(3) 관련 조직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

- 일선에서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009년 10,334명에서 2012년 12,907명, 2015년 16,269명으로 크게 증가함. 충북의 경우 2009년 399명이었으나 2012년은 506명, 2014년은 601명으로 증가함. 최근 공공복지전달 체계 개편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구축 등이 실현되면서 공공복지 인력이 충원되어진 결과임.

<표 3-2-26>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

	2009		2012		2014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서울	1,285	12.4	1,801	14.0	2,293	14.1
부산	707	6.8	892	6.9	1,188	7.3
대구	466	4.5	589	4.6	802	4.9
인천	456	4.4	595	4.6	720	4.4
광주	272	2.6	366	2.8	495	3.0
대전	267	2.6	327	2.5	425	2.6
울산	146	1.4	197	1.5	253	1.6
세종	-	-	48	0.4	62	0.4
경기	1,697	16.4	2,060	16.0	2,652	16.3
강원	521	5.0	619	4.8	794	4.9
충북	399	3.9	506	3.9	601	3.7
충남	650	6.3	702	5.4	891	5.5
전북	701	6.8	866	6.7	1,035	6.4
전남	930	9.0	1,070	8.3	1,264	7.8
경북	882	8.5	1,137	8.8	1,369	8.4
경남	827	8.0	996	7.7	1,223	7.5
제주	128	1.2	136	1.1	202	1.2
소계	10,334	100	12,907	100	16,269	100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0, 2013, 2015.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원 기준임.

3. 여성복지

□ 여성 인구 현황

- 충북의 여성인구 비율은 2009년부터 49.6%를 유지하고 있음. 충북도의 전체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1,583,952명이며, 이 중 여성인구는 785,056명으로 나타남. 전국적으로 여성인구는 25,771,152명으로 50.0%를 차지함.

<표 3-3-1> 여성 인구 수

	2009			2012			2015		
	총인구	여성인구	비율	총인구	여성인구	비율	총인구	여성인구	비율
서울	10,208,302	5,149,033	50.4	10,195,318	5,153,982	50.6	10,022,181	5,091,238	50.8
부산	3,543,030	1,781,828	50.3	3,538,484	1,784,005	50.4	3,513,777	1,778,207	50.6
대구	2,489,781	1,245,903	50.0	2,505,644	1,256,324	50.1	2,487,829	1,250,538	50.3
인천	2,710,579	1,345,770	49.6	2,843,981	1,412,388	49.7	2,925,815	1,455,946	49.8
광주	1,433,640	722,549	50.4	1,469,216	740,810	50.4	1,472,199	742,537	50.4
대전	1,484,180	741,059	49.9	1,524,583	760,912	49.9	1,518,775	758,997	50.0
울산	1,114,866	541,259	48.5	1,147,256	556,832	48.5	1,173,534	568,645	48.5
세종	-	-	0.0	113,117	55,484	49.1	210,884	105,132	49.9
경기	11,460,610	5,687,041	49.6	12,093,299	6,002,264	49.6	12,522,606	6,222,794	49.7
강원	1,512,870	751,600	49.7	1,538,630	764,357	49.7	1,549,507	768,073	49.6
충북	1,527,478	757,510	49.6	1,565,628	776,342	49.6	1,583,952	785,056	49.6
충남	2,037,582	1,007,857	49.5	2,028,777	1,001,965	49.4	2,077,649	1,023,210	49.2
전북	1,854,508	930,028	50.1	1,873,341	939,955	50.2	1,869,711	939,456	50.2
전남	1,913,004	957,050	50.0	1,909,618	955,264	50.0	1,908,996	955,115	50.0
경북	2,669,876	1,328,899	49.8	2,698,353	1,343,059	49.8	2,702,826	1,345,520	49.8
경남	3,250,176	1,614,476	49.7	3,319,314	1,648,769	49.7	3,364,702	1,669,721	49.6
제주	562,663	281,344	50.0	583,713	291,500	49.9	624,395	310,967	49.8
전국	49,773,145	24,843,206	49.9	50,948,272	25,444,212	49.9	51,529,338	25,771,152	50.0

출처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stat.mohw.go.kr)

1) 일반 환경

□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여성빈곤의 척도가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은 대구광역시가 57.2%로 가장 높고 충북은 56.0%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9위로 나타남. 전국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이 56.1%인 것을 볼 때 충북이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3-3-2> 기초생활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

	2009		2012		2014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서울	57.1	9	56.7	8	55.7	12
부산	56.3	14	56.5	11	56.0	9
대구	57.5	1	57.6	1	57.2	1
인천	57.4	2	57.1	3	56.2	7
광주	57.4	2	57.4	2	56.9	2
대전	56.9	10	56.6	9	56.2	7
울산	55.5	16	55.7	15	54.7	17
세종			54.7	17	55.2	15
경기	57.2	6	56.9	6	56.4	5
강원	56.1	15	55.7	15	55.2	15
충북	56.7	11	56.6	10	56.0	9
충남	56.7	11	56.5	11	55.8	11
전북	57.4	2	56.9	6	56.5	3
전남	57.4	2	56.5	11	55.4	13
경북	57.2	6	57.1	3	56.5	3
경남	56.6	13	56.3	14	55.3	14
제주	57.2	6	57.1	3	56.3	6
전국	57.0		56.8		56.1	

출처 : 여성가족부,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015.

□ 여성의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가입자 비율

○ 노후 준비와 관련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으로 크게 구분됨. 이러한 공적연금체계에 가입한 여성의 비율은 총복이 42.1%로 나타남. 이는 2009년 37.6%보다 늘어난 것이기는 하나 전국평균 42.2%에 약간 못 미치고 있어 17개 광역 시도 중 9위를 차지하고 있음. 가장 높은 곳은 46.1%를 나타낸 제주, 46.0%의 광주, 45.6%의 대전 등으로 나타남.

<표 3-3-3> 여성의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가입자 비율

	2009		2012		2014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서울	39.3	4	42.9	6	44.2	7
부산	39.3	4	43.3	4	44.6	4
대구	39.1	6	43.3	4	44.1	8
인천	35.8	11	40.1	10	41.6	10
광주	41.0	2	44.9	2	46.0	2
대전	39.8	3	44.6	3	45.6	3
울산	31.6	16	34.8	16	36.0	16
세종	-	-	32.8	17	36.5	17
경기	36.0	10	39.9	11	40.9	11
강원	38.6	8	42.9	6	44.5	5
총복	37.6	9	40.9	9	42.1	9
충남	33.8	14	36.9	14	38.1	14
전북	38.9	7	42.7	8	44.4	6
전남	34.4	13	38.5	12	39.2	12
경북	33.1	15	36.3	15	38.1	14
경남	34.5	12	37.7	13	38.7	13
제주	41.3	1	44.6	1	46.1	1
전국	37.3		41.0		42.2	

출처 : 여성가족부,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015.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적으로 51.3%로 나타남. 충북은 2015년에 이보다 약간 높은 53.6%로 나타남. 전국적으로도 제주, 서울 다음으로 높은 비율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러한 비율은 2009년 50.3%에서 2012년 49.9%에 비해 높아진 수치임.

<표 3-3-4>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2009		2012		2014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서울	49.8	7	52.3	5	53.7	2
부산	45.7	15	47.4	13	47.7	15
대구	47.6	13	50.4	7	50.7	9
인천	49.4	8	52.6	4	53.2	5
광주	47.9	11	47.3	15	50.4	10
대전	47.4	14	48.4	9	50.1	11
울산	45.2	16	44.2	16	40.8	16
경기	47.8	12	48.1	11	51.0	8
강원	48.8	10	48.3	10	48.9	13
충북	50.3	5	49.9	8	53.6	3
충남	50.5	4	50.9	6	52.2	7
전북	49.3	9	47.4	13	47.8	14
전남	54.9	2	53.6	2	52.8	6
경북	52.8	3	53.3	3	53.3	4
경남	50.2	6	47.9	12	49.5	12
제주	60.3	1	60.4	1	60.5	1
전국	49.2		49.9		51.3	

출처 : 여성가족부,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015.

□ 성별임금격차 비율

○ 여성과 남성의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심한 곳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았던 제주가 63.6%로 가장 높고, 서울 63.4%, 충북 6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충북은 전국평균 59.3%과 비교해 볼 때 3.4%가 높아 임금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57.2%, 2012년 60.6%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아져 임금격차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5>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 비율

	2009		2012		2014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서울	62.1	1	62.2	4	63.4	2
부산	60.1	5	58.6	9	60.4	8
대구	60.1	5	55.7	12	58.7	11
인천	59.3	9	59.6	8	60.0	9
광주	60.7	4	64.8	1	61.4	5
대전	58.3	12	57.9	10	61.4	5
울산	52.0	16	48.5	16	45.6	16
경기	59.7	7	57.2	11	58.4	12
강원	61.1	3	63.6	3	60.7	7
충북	57.2	13	60.6	6	62.7	3
충남	58.9	10	61.4	5	59.8	10
전북	59.6	8	64.8	1	62.3	4
전남	52.8	15	52.9	15	51.1	15
경북	55.5	14	55.2	13	55.7	13
경남	58.8	11	55.1	14	54.3	14
제주	62.0	2	59.9	7	63.6	1
전국	59.7		58.8		59.3	

비율산출 방법 : 여성 임금/남성 임금*100

출처 : 여성가족부,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015.

□ 강력범죄 여성피해자 비율

○ 안전과 관련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여성피해자 비율은 충북이 81.7%로 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다행히 이러한 결과는 2009년 7위, 2012년 3위였던 결과에 비해 범죄피해자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할 것임.

<표 3-3-6> 강력범죄 여성피해자 비율

	2009		2012		2014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서울	76.1	11	85.4	7	88.8	2
부산	72.6	16	82.5	15	88.5	4
대구	73.2	14	87.5	1	86.4	8
인천	76.1	11	85.4	7	86.4	8
광주	91.2	1	86.7	2	88.6	3
대전	72.8	15	83.2	13	85.4	12
울산	83.7	2	85.7	6	87.3	6
경기	74.9	13	85.4	7	88.1	5
강원	76.7	9	86.3	5	83.1	14
충북	78.1	7	86.5	3	81.7	16
충남	76.4	10	82.1	16	83.5	13
전북	80.1	5	86.4	4	82.9	15
전남	80.5	4	84.4	12	86.0	11
경북	79.8	6	82.6	14	86.7	7
경남	76.8	8	83.7	10	86.2	10
제주	80.7	3	83.7	10	89.4	1

출처 : 여성가족부,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015.

□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 육아휴직은 대부분 여성들이 사용하지만 최근 남성 즉, 아빠들이 육아휴직이 늘고 있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서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로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중요해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전체 근로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국 4.5%이며 충북은 이보다 약간 높은 4.7%로 나타남. 이는 2009년 전국 1.4%, 충북 1.5%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비율로 남성육아휴직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음.

<표 3-3-7> 남성육아휴직자 비율

	2009		2012		2014	
	남성	비율	남성	비율	남성	비율
서울	241	1.4	800	2.6	1,534	4.3
부산	15	0.8	58	1.9	110	3.1
대구	11	1.1	32	1.9	69	3.3
인천	16	1.7	57	3.2	78	3.7
광주	10	1.4	17	1.4	31	2.1
대전	10	0.9	98	4.2	185	6.7
울산	8	1.9	23	2.7	62	5.0
세종			1	0.9	10	5.2
경기	100	1.7	405	3.3	763	5.2
강원	10	1.9	41	4.2	65	5.5
충북	10	1.5	19	1.6	64	4.7
충남	6	0.6	54	3.6	81	5.0
전북	8	1.4	32	2.6	55	3.9
전남	12	2.2	27	2.9	75	6.0
경북	16	1.5	40	2.7	97	4.9
경남	21	1.6	63	2.4	105	3.4
제주	8	1.9	23	3.7	37	4.2
전국	502	1.4	1,790	2.8	3,421	4.5

출처 : 여성가족부,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015.

□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 여성 및 가족복지 향상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151개소가 운영 중임. 최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기능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충북도 일부 시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 과정에 있으며,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4개소가 운영 중임.

<표 3-3-8> 건강가정지원센터 수

	2009		2012		2014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26	26.5	26	17.4	26	17.2
부산	5	5.1	8	5.4	9	6.0
대구	3	3.1	7	4.7	7	4.6
인천	5	5.1	9	6.0	9	6.0
광주	2	2.0	5	3.4	5	3.3
대전	1	1.0	1	0.7	1	0.7
울산	1	1.0	2	1.3	2	1.3
세종			1	0.7	1	0.7
경기	28	28.6	31	20.8	32	21.2
강원	4	4.1	7	4.7	7	4.6
충북	2	2.0	4	2.7	4	2.6
충남	6	6.1	10	6.7	10	6.6
전북	3	3.1	6	4.0	6	4.0
전남	3	3.1	9	6.0	9	6.0
경북	3	3.1	9	6.0	9	6.0
경남	4	4.1	12	8.1	12	7.9
제주	2	2.0	2	1.3	2	1.3
전국	98	100.0	149	100.0	151	100.0

출처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센터 사업 안내」 2010, 2013, 2015.

□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 전국적으로 결혼이민자 및 국적을 취득한 인지귀화자가 2015년 현재 305,446명에 이룸. 이는 2009년 199,398명에 비해 약 53.2%가 상승한 인원으로 빠르게 증가함. 충북의 경우도 2009년 5,165명에서 2012년 7,417명, 2015년 8,736명으로 69.1%가 증가하여 전국적인 증가추세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표 3-3-9>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2009		2012		2015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	57,281	28.7	70,381	26.3	74,629	24.4
부산	7,973	4.0	10,305	3.8	11,720	3.8
대구	5,170	2.6	6,664	2.5	7,827	2.6
인천	11,872	6.0	16,029	6.0	19,397	6.4
광주	3,384	1.7	4,590	1.7	5,540	1.8
대전	3,849	1.9	5,123	1.9	5,750	1.9
울산	3,301	1.7	4,561	1.7	5,750	1.9
세종	-	-	-	-	741	0.2
경기	53,998	27.1	77,128	28.8	89,877	29.4
강원	4,449	2.2	6,103	2.3	6,697	2.2
충북	5,165	2.6	7,417	2.8	8,736	2.9
충남	8,614	4.3	12,348	4.6	14,019	4.6
전북	6,940	3.5	9,068	3.4	10,291	3.4
전남	7,452	3.7	10,115	3.8	11,316	3.7
경북	8,333	4.2	11,067	4.1	13,045	4.3
경남	10,107	5.1	14,443	5.4	16,836	5.5
제주	1,510	0.8	2,385	0.9	3,275	1.1
전국	199,398	100.0	267,727	100.0	305,446	100.0

출처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2015. 7 기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이후 설립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217개소가 운영 중임. 경기도가 30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 24개소, 경북이 23개소로 나타남. 충북은 현재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각 1개소 씩 12개소가 운영 중임. 앞서 제시한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를 대상으로 1개소 당 대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충북은 728명으로 전국 평균 1,408명에 비해 낮게 나타나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됨.

<표 3-3-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

	2009		2012		2015		1개소당 대상자 수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4	4.0	23	11.1	24	11.1	3,110
부산	4	4.0	8	3.9	9	4.1	1,302
대구	4	4.0	7	3.4	7	3.2	1,118
인천	3	3.0	9	4.3	9	4.1	2,155
광주	2	2.0	4	1.9	4	1.8	1,385
대전	2	2.0	4	1.9	5	2.3	1,150
울산	2	2.0	4	1.9	5	2.3	1,150
세종	-	0.0	1	0.5	1	0.5	741
경기	10	10.0	29	14.0	30	13.8	2,996
강원	8	8.0	14	6.8	18	8.3	372
충북	7	7.0	12	5.8	12	5.5	728
충남	7	7.0	14	6.8	14	6.5	1,001
전북	9	9.0	14	6.8	14	6.5	735
전남	13	13.0	20	9.7	21	9.7	539
경북	13	13.0	23	11.1	23	10.6	567
경남	11	11.0	19	9.2	19	8.8	886
제주	1	1.0	2	1.0	2	0.9	1,638
전국	100	100.0	207	100.0	217	100.0	1,408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안내」 2010, 2013, 2016.

1개소당 대상자 수는 결혼이민자 수 대비 시설 수로 산정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자가족 시설이 주를 이룸. 전국적으로 127개소가 운영 중이며 충북은 2009년 3개소에서 2015년 5개소로 증가했으나 2016년 초 미혼모시설이 운영난으로 폐쇄되면서 보고서 발행일 기준으로 2016년 현재는 4개소가 운영 중임.

<표 3-3-1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수

	2009		2012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20	16.5	20	16.3	26	20.5
부산	11	9.1	11	8.9	11	8.7
대구	10	8.3	10	8.1	9	7.1
인천	10	8.3	10	8.1	10	7.9
광주	5	4.1	5	4.1	5	3.9
대전	6	5.0	6	4.9	7	5.5
울산	4	3.3	4	3.3	4	3.1
경기	16	13.2	15	12.2	12	9.4
강원	3	2.5	3	2.4	3	2.4
충북	3	2.5	4	3.3	5	3.9
충남	4	3.3	4	3.3	5	3.9
전북	9	7.4	9	7.3	7	5.5
전남	4	3.3	5	4.1	5	3.9
경북	7	5.8	7	5.7	8	6.3
경남	5	4.1	6	4.9	6	4.7
제주	4	3.3	4	3.3	4	3.1
전국	121	100.0	124	100.0	127	100.0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각 연도별 현황자료

2) 조직 및 인적자원

□ 광역 및 기초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

- 여성의 성평등 인식 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환경 중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광역 및 기초의원 중 여성의원과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임.
- 민선 4기(2006), 민선 5기(2010), 민선 6기(2014)의 광역의회 여성의원 활동비율은 전국 평균 14.3%이지만 충북은 12.9%로 낮게 나타남. 참여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와 대전으로 27.3%로 나타남.

<표 3-3-12> 광역의회 여성의원 수

	2006		2010		2014	
	의원 수	비율	의원 수	비율	의원 수	비율
서울	13	12.3	19	17.9	21	19.8
부산	6	12.8	5	10.6	6	12.8
대구	5	17.2	7	24.1	6	20.0
인천	3	9.1	5	15.2	3	8.6
광주	3	15.8	4	18.2	6	27.3
대전	3	15.8	4	18.2	6	27.3
울산	5	26.3	7	31.8	4	18.2
세종					3	20.0
경기	17	14.3	19	15.3	20	15.6
강원	4	10	6	14.3	3	6.8
충북	3	9.7	3	9.7	4	12.9
충남	4	10.5	4	10.0	2	5.0
전북	3	7.9	4	10.5	5	13.2
전남	4	7.8	5	8.8	5	8.6
경북	5	9.1	8	13.8	4	6.7
경남	6	11.3	8	14.8	8	15.4
제주	5	13.9	5	13.9	7	19.4
전국	84	12.1	108	14.8	113	14.3

출처 : 여성가족부,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015.

- 기초의회 여성의원은 전국 평균 25.3%이지만 충북은 21.4%로 낮게 나타남.
가장 높은 곳은 광주시로 33.8%의 여성의원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시가 33.2%, 대전시가 31.7%, 경기도 31.3% 등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다만, 충북의 경우도 2006년 민선 4기 의회에는 13.0%였으나 2014년 민선 6기 의회에는 21.4%로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3-13> 기초의회 여성의원 수

	2006		2010		2014	
	의원 수	비율	의원 수	비율	의원 수	비율
서울	82	19.6	119	28.4	139	33.2
부산	34	18.7	43	23.6	51	28.0
대구	17	14.7	25	21.6	33	28.4
인천	17	15.2	30	26.8	30	25.9
광주	18	26.5	21	30.9	23	33.8
대전	10	15.9	16	25.4	20	31.7
울산	11	22.0	12	24.0	13	26.0
경기	65	15.6	113	27.1	135	31.3
강원	26	15.4	32	18.9	38	22.5
충북	17	13.0	26	19.8	28	21.4
충남	22	12.4	32	18.0	40	23.7
전북	25	12.7	30	15.2	37	18.8
전남	22	9.1	39	16.0	44	18.1
경북	36	12.7	42	14.8	44	15.5
경남	35	13.5	46	17.8	57	21.9
제주	-	-	-	-	-	-
전국	437	15.1	626	21.7	732	25.3

출처 : 여성가족부,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015.

□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

○ 5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여성공직자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평균 11.6%로 나타났으나 충북은 7.2%로 매우 낮게 나타남. 이 비율은 2009년 4.8%, 2012년 5.7%에서 비교적 상승한 것이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 보다 낮았음.

<표 3-3-14>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009		2012		2014	
	인원 수	비율	인원 수	비율	인원 수	비율
서울	429	14.1	549	17.3	707	21.2
부산	104	8.5	152	11.33	174	12.6
대구	75	9.4	102	11.5	119	12.4
인천	109	10.1	132	11.3	157	12.5
광주	64	10.5	82	12.2	106	14.9
대전	61	10.1	76	11.9	94	14.0
울산	29	6.2	38	7.4	47	8.7
세종			17	10.9	26	12.6
경기	262	9.0	343	10.8	386	11.6
강원	57	5.4	64	5.7	81	6.9
충북	40	4.8	49	5.7	65	7.2
충남	56	5.0	60	5.2	71	6.0
전북	63	5.7	84	7.3	110	9.4
전남	68	5.2	79	6.0	108	7.9
경북	65	4.4	94	6.0	110	6.9
경남	66	4.6	87	5.8	103	6.9
제주	47	8.9	56	10.6	63	11.6
전국	1,595	8.1	2,064	9.9	2,527	11.6

출처 : 여성가족부,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015.

4. 아동복지

1) 시설 환경

(1) 요보호아동 100 명 당 아동복지시설 수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뜻함.
- 전국기준 요보호아동은 2009년 9,028명, 2012년 6,926명, 2015년 4503명으로 나타남.
- 전체 아동복지시설 수 항목의 경우 요보호아동 100 명 당 평균 시설 수에서 각 2009년 4.06개, 2012년 6.22개, 2015년 8.37개로 증가 추세를 보임.
- 요보호아동 인구 100명 당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대구, 대전, 경남, 경북, 세종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대구의 경우 16.55개로 1위를 차지함. 울산의 경우 0.96개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8.37개 이하인 7.30개로 전체에서 11위를 차지함. 전국 요보호아동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충북의 요보호아동은 증가하면서 시설 증가 및 관련 복지 개선이 요구됨. 최근 3년간 충북에서만 요보호 아동이 482명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맡겨짐. 발생사유로 이혼이 가장 많아 관련 정책 보완이 필요.

<표 3-4-1> 요보호아동 100명 당 아동복지시설 수 : 아동복지시설

	2009		2012		2015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서울	1.36	2.09	2.16	2.04	3.41	2.40
부산	5.99	9.24	6.98	6.61	8.27	5.81
대구	10.73	16.53	13.33	12.61	16.55	11.63
인천	3.06	4.71	2.96	2.80	4.35	3.06
광주	2.64	4.06	4.06	3.84	9.68	6.80
대전	3.21	4.95	3.54	3.34	14.14	9.94
울산	0.92	1.41	0.81	0.76	0.96	0.68
세종			25.00	23.65	11.11	7.81
경기	3.50	5.40	3.37	3.19	4.64	3.26
강원	3.13	4.81	3.82	3.61	3.85	2.70
충북	4.18	6.44	5.10	4.82	7.30	5.14
충남	6.00	9.24	6.73	6.37	7.91	5.56
전북	3.50	5.39	4.46	4.22	6.64	4.67
전남	4.87	7.51	7.01	6.63	9.39	6.60
경북	3.60	5.54	5.81	5.50	11.54	8.11
경남	5.61	8.64	6.33	5.99	12.50	8.79
제주	2.62	4.03	4.24	4.01	10.00	7.03
소계	64.91	100	105.71	100.00	142.23	100.00

(2) 아동복지시설 분류별 시설 수

□ 아동양육시설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분류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을 살펴보면, 전체 아동양육시설 수 항목의 경우 각 2009년 총 239개, 2012년 총 243개, 2015년 총 243개로 꾸준한 모습을 보임.

- 전체 아동양육시설 수 항목에 대하여 서울, 경기, 경남의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서울의 경우 36개로 1위를 차지함. 울산과 세종 지역의 경우 각각 1개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11개로 전체에서 11위를 차지함. 2009년 10개, 2012년 11개, 2015년 11개로 꾸준한 모습을 보임. 충북에서 지난 3년간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맡겨진 요보호 아동이 482명에 이룸. 보호자가 없는 경우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능력이 없는 처지의 아동을 요보호 아동이라고 함.

<표 3-4-2> 아동복지시설 분류별 시설 수 : 아동양육시설

	2009		2012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33	13.81	35	14.40	36	14.81
부산	19	7.95	19	7.82	19	7.82
대구	18	7.53	18	7.41	18	7.41
인천	9	3.77	9	3.70	9	3.70
광주	9	3.77	9	3.70	10	4.12
대전	11	4.60	12	4.94	12	4.94
울산	1	0.42	1	0.41	1	0.41
세종		-	1	0.41	1	0.41
경기	27	11.30	27	11.11	26	10.70
강원	9	3.77	9	3.70	8	3.29
충북	10	4.18	11	4.53	11	4.53
충남	14	5.86	13	5.35	13	5.35
전북	14	5.86	14	5.76	14	5.76
전남	21	8.79	21	8.64	21	8.64
경북	15	6.28	15	6.17	15	6.17
경남	24	10.04	24	9.88	24	9.88
제주	5	2.09	5	2.06	5	2.06
소계	239	100	243	100	243	100

□ 아동보호치료시설

- 전체 아동보호치료시설 수 항목의 경우 각 2009년 총 11개, 2012년 총 11개,

2015년 총 11개로 꾸준한 모습을 보임. 경기지역의 시설수가 줄어든 만큼 서울의 시설수가 증가하여 매년 총 아동보호치료시설 수가 일정함.

- 전체 아동보호치료시설 수 항목에 대하여 서울이 3개로 1위를 차지함. 부산,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남, 경북, 제주의 9개 지역의 경우 시설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1개로 전체에서 대전, 경기, 전북, 전남, 경남과 공동 3위를 차지함. 2009년 1개, 2012년 1개, 2015년 1개로 일정한 시설 수를 보임. 아동보호치료시설은 국고가 아닌 지자체 지원만으로 운영돼 지역과 시설별 재정편차가 심함. 아동보호치료시설을 국가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표 3-4-3> 아동복지시설 분류별 시설 수 : 아동보호치료시설(개)

	2009		2012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1	9.09	2	18.18	3	27.27
부산	1	9.09	1	9.09	0	-
대구	1	9.09	1	9.09	2	18.18
인천						
광주						
대전	1	9.09	1	9.09	1	9.09
울산						
세종						
경기	3	27.27	2	18.18	1	9.09
강원						
충북	1	9.09	1	9.09	1	9.09
충남						
전북	1	9.09	1	9.09	1	9.09
전남	1	9.09	1	9.09	1	9.09
경북						
경남	1	9.09	1	9.09	1	9.09
제주						
소계	11	100.0	11	100.0	11	100.0

□ 자립지원시설

- 전체 자립지원시설 수 항목의 경우 각 2009년 총 12개, 2012년 총 12개, 2015년 총 12개로 일정한 추세를 보임. 전국적으로 시설수의 변동이 없음.
- 전체 자립지원시설 수에 대하여 서울이 3개로 1위를 차지함.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제주 8개 지역의 경우 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1개로 전체에서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과 공동으로 3위를 차지함. 2009년 1개, 2012년 1개, 2015년 1개로 일정한 모습을 보임.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자립정착금의 경우 금액과 지급대상에서 지자체별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부산과 서울 등 10개 지자체의 경우 지원을 하지만 경남과 경북 등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표 3-4-4> 아동복지시설 분류별 시설 수 : 자립지원시설

	2009		2012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3	25.00	3	25.00	3	25.00
부산	1	8.33	1	8.33	1	8.33
대구	2	16.67	2	16.67	2	16.67
인천						
광주	1	8.33	1	8.33	1	8.33
대전	1	8.33	1	8.33	1	8.33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1	8.33	1	8.33	1	8.33
충남	1	8.33	1	8.33	1	8.33
전북	1	8.33	1	8.33	1	8.33
전남	1	8.33	1	8.33	1	8.33
경북						
경남						
제주						
소계	12	100	12	100	12	100

□ 종합시설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가 있음. 이러한 아동복지시설들을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음.
- 전체 종합시설 수 항목의 경우 각 2009년 총 3개, 2012년 총 3개, 2015년 총 3개로 일정한 추세를 보임. 전체 종합시설 수에 대하여 서울 2개, 강원 1개로 나머지 지역 모두 시설이 존재하지 않음. 충북의 경우에도 시설이 존재하지 않음. 충북은 도내의 7개 광역 기관, 8개 민간단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고 협조를 당부. 아동복지에 대한 민간자원의 활용과 협력이 중요한 시점임.

<표 3-4-5> 아동복지시설 분류별 시설 수 : 종합시설

	2009		2012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2	66.67	2	66.67	2	66.67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1	33.33	1	33.33	1	33.33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3	100	3	100	3	100

□ 아동일시보호시설

- 전체 아동일시보호시설 수 항목의 경우 각 2009년 총 13개, 2012년 총 12개, 2015년 총 12개로 대체로 일정한 추세를 보임. 전체 아동일시보호시설 수에 대하여 서울이 5개로 1위를 차지함.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개 지역의 경우 시설이 존재하지 않음.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0개로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없음. 심각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해마다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해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존재가 꼭 필요함이 부각됨. 충북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보호시설이 부족해 학대 아동 10명 중 7명 정도가 학대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수가 2012년 1만 943건에서 2015년 1만9천209건으로 76% 증가.

<표 3-4-6> 아동복지시설 분류별 시설 수 : 아동일시보호시설

	2009		2012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5	38.46	5	41.67	5	41.67
부산	1	7.69	1	8.33	1	8.33
대구	1	7.69	1	8.33	1	8.33
인천	2	15.38	2	16.67	1	8.33
광주	1	7.69	1	8.33	1	8.33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	15.38	2	16.67	2	16.6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	7.69				
경남						
제주						
소계	13	100	12	100	12	100

□ 아동상담소

- 전체 아동상담소 시설 수 항목의 경우 각 2009년 총 39개, 2012년 총 10개, 2015년 총 6개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전체 아동상담소에 대하여 인천 5곳, 경기 1곳만이 남아있음.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0개로 아동상담소 시설이 존재하지 않음. 아동상담소는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다양한 민간기업 및 기관으로 대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3-4-7> 아동복지시설 분류별 시설 수 : 아동상담소

	2009		2012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3	7.69				
부산	4	10.26				
대구	3	7.69				
인천	6	15.38	5	50.00	5	83.33
광주	3	7.69	1	10.00		
대전	4	10.26				
울산	1	2.56	1	10.00		
세종						
경기	6	15.38	3	30.00	1	16.67
강원	4	10.26				
충북						
충남	1	2.56				
전북	2	5.13				
전남						
경북						
경남	2	5.13				
제주						
소계	39	100	10	100	6	100

□ 아동전용시설

- 전체 아동전용시설 수 항목의 경우 각 2009년 총 3개, 2012년 총 3개, 2015년 총 4개로 경남에서 시설이 없어진 반면 충북에 2 개소가 신설되어 증가함.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2개로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함. 2009년 0개, 2012년 0개, 2015년 2개로 증가함. 아동전용시설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뜻 함. 군산시가 유니세프로부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인 '아동의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뜻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바 있음.

<표 3-4-8> 아동복지시설 분류별 시설 수 : 아동전용시설

	2009		2012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1	33.33	1	33.33	1	25.00
광주	1	33.33	1	33.33	1	25.00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2	50.00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	33.33	1	33.33		
제주						
소계	3	100	3	100	4	100

□ 개인양육시설

- 전체 개인양육시설 수 항목의 경우 각 2009년 총 25개, 2012년 총 34개, 2015년 총 20개로 경기 지역에서 2009 0개, 2012 16개, 2015년 6개로 변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꾸준하지 않은 모습을 보임.
- 전체 개인양육시설 수 항목에 대하여 경기가 6개로 1위를 차지함.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전북의 경우 시설이 존재하지 않음.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1개로 전체에서 5위를 차지함. 2009년 1개, 2012년 1개, 2015년 1개로 일정한 모습을 보임.

<표 3-4-9> 아동복지시설 분류별 시설 수 : 개인양육시설

	2009		2012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5	20.00	2	5.88	1	5.00
부산	2	8.00	2	5.88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	4.00				
울산						
세종						
경기			16	47.06	6	30.00
강원	5	20.00	5	14.71	5	25.00
충북	1	4.00	1	2.94	1	5.00
충남						
전북	1	4.00	1	2.94		
전남	3	12.00	1	2.94	2	10.00
경북	5	20.00	4	11.76	3	15.00
경남	1	4.00	1	2.94	1	5.00
제주	1	4.00	1	2.94	1	5.00
소계	25	100	34	100	20	100

□ 공동생활가정

- 전체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 항목의 경우 각 2012년 총 489개, 2015년 총 480개로 감소함.
- 전체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에 대하여 경기도가 123개로 1위를 차지함. 세종의 경우 1개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23개로 전체에서 8위를 차지함. 2012년 26개, 2015년 23개로 감소함.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곳임. 공동생활가정으로 오는 보호대상아동의 사유 중 32.7%가 부모이혼, 21.3%가 학대, 19%가 미혼모, 8.9%가 부모사망, 6%가 비행가출, 5.8%가 부모빈곤 및 실직, 3.1%가 부모 질병, 2%가 기아, 0.8%가 미아의 순으로 나타났기에 유형별 복지 방안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

<표 3-4-10>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 : 공동생활가정

	2009		2012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	-	60	12.27	63	13.13
부산	-	-	26	5.32	29	6.04
대구	-	-	19	3.89	15	3.13
인천	-	-	14	2.86	13	2.71
광주	-	-	26	5.32	26	5.42
대전	-	-	18	3.68	17	3.54
울산	-	-	8	1.64	7	1.46
세종	-	-	1	0.20	1	0.21
경기	-	-	122	24.95	123	25.63
강원	-	-	23	4.70	22	4.58
충북	-	-	26	5.32	23	4.79
충남	-	-	20	4.09	21	4.38
전북	-	-	50	10.22	44	9.17
전남	-	-	34	6.95	34	7.08
경북	-	-	11	2.25	11	2.29
경남	-	-	26	5.32	26	5.42
제주	-	-	5	1.02	5	1.04
소계			489	100	480	100

□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최근 아동학대 증가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9년 45개소에서 2015년 57개소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충북의 경우 2009년도부터 3개소만 운영되어 운영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데 비해 시설이나 인력이 확대되지 않아 업무과중이 우려됨.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가 필요함.

<표 3-4-11>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009		2012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8	17.8	9	18.8	9	15.8
부산	2	4.4	2	4.2	3	5.3
대구	1	2.2	1	2.1	3	5.3
인천	2	4.4	3	6.3	3	5.3
광주	1	2.2	1	2.1	1	1.8
대전	1	2.2	1	2.1	1	1.8
울산	1	2.2	1	2.1	1	1.8
세종	-	-	-	-	-	-
경기	8	17.8	8	16.7	11	19.3
강원	3	6.7	3	6.3	4	7.0
충북	3	6.7	3	6.3	3	5.3
충남	2	4.4	2	4.2	3	5.3
전북	3	6.7	3	6.3	3	5.3
전남	2	4.4	3	6.3	3	5.3
경북	4	8.9	4	8.3	4	7.0
경남	2	4.4	2	4.2	3	5.3
제주	2	4.4	2	4.2	2	3.5
소계	45	100.0	48	100.0	57	100.0

* 보건복지부.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2009, 2012, 2015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접수 건 수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2009년 9,309건이던 신고가 2015년 16,651건으로 크게 증가함. 이는 신고의무자 증가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의식전환이 많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음. 충북의 경우도 2009년 600건에서 2015년 81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여전히 3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함.

<표 3-4-12>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접수 건 수

	2009		2012		2015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서울	1,211	13.0	1,496	13.7	1,957	11.8
부산	578	6.2	660	6.0	765	4.6
대구	262	2.8	361	3.3	524	3.1
인천	520	5.6	565	5.2	733	4.4
광주	348	3.7	242	2.2	351	2.1
대전	245	2.6	261	2.4	400	2.4
울산	322	3.5	342	3.1	526	3.2
세종	-	-	-	-	-	-
경기	1,755	18.9	2,508	22.9	4,215	25.3
강원	600	6.4	451	4.1	805	4.8
충북	600	6.4	648	5.9	816	4.9
충남	399	4.3	461	4.2	936	5.6
전북	495	5.3	635	5.8	1,165	7.0
전남	437	4.7	553	5.1	979	5.9
경북	594	6.4	838	7.7	1,199	7.2
경남	649	7.0	630	5.8	916	5.5
제주	294	3.2	292	2.7	364	2.2
소계	9,309	100.0	10,943	100.0	16,651	100.0

* 보건복지부.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2009, 2012, 2015

□ 지역아동센터 수

○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가정 형태의 이용시설로 아이들에게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곳으로 2004년 범제화 된 이후 급속하게 시설이 증가하고 있음. 2009년 전국적으로 3,474개소이던 것이 2012년 4,036개소, 2015년 4,102개소로 증가함. 최근에는 2년 간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정부지원이 뭉에도 불구하고 돌봄 아동 증가로 인해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 다만, 충북의 경우 아동 수 감소로 인한 운영난을 겪으면서 일부 시설이 운영을 중단하여 다른 지역과 달리 조금씩 감소추세에 있음.

<표 3-4-13> 지역아동센터 수

	2009		2012		2015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서울	354	10.2	404	10.0	414	10.1
부산	171	4.9	196	4.9	205	5.0
대구	115	3.3	177	4.4	200	4.9
인천	175	5.0	187	4.6	179	4.4
광주	201	5.8	278	6.9	300	7.3
대전	139	4.0	146	3.6	146	3.6
울산	54	1.6	57	1.4	56	1.4
세종	-	-	11	0.3	11	0.3
경기	656	18.9	735	18.2	757	18.5
강원	159	4.6	164	4.1	166	4.0
충북	176	5.1	202	5.0	188	4.6
충남	181	5.2	214	5.3	232	5.7
전북	255	7.3	288	7.1	281	6.9
전남	343	9.9	392	9.7	387	9.4
경북	206	5.9	256	6.3	259	6.3
경남	219	6.3	257	6.4	253	6.2
제주	70	2.0	72	1.8	68	1.7
소계	3,474	100.0	4,036	100.0	4,102	100.0

* 보건복지부.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2009, 2012, 2015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

○ 지역아동센터 수의 증가는 이용아동 수도 자연스럽게 증가시키고 있음. 2009년 97,926명이 이용하였으나 2015년 109,661명의 이용아동이 집계되어 연간 10만 명의 넘는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음. 충북의 경우 시설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 5,119명, 2012년 5,927명, 2015년 6,357명으로 이용아동이 증가하고 있음.

<표 3-4-14>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

	2009		2012		2015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서울	9,560	9.8	10,727	9.9	11,428	10.4
부산	4,488	4.6	4,979	4.6	4,940	4.5
대구	2,879	2.9	4,286	4.0	5,007	4.6
인천	4,963	5.1	4,582	4.2	4,544	4.1
광주	6,038	6.2	8,051	7.4	8,137	7.4
대전	4,705	4.8	4,375	4.0	4,112	3.7
울산	1,323	1.4	1,393	1.3	1,305	1.2
세종	-	-	298	0.3	285	0.3
경기	19,589	20.0	20,779	19.2	21,682	19.8
강원	4,274	4.4	4,441	4.1	4,375	4.0
충북	5,092	5.2	5,310	4.9	5,095	4.6
충남	5,119	5.2	5,927	5.5	6,357	5.8
전북	6,731	6.9	7,464	6.9	7,275	6.6
전남	10,042	10.3	10,938	10.1	10,342	9.4
경북	5,633	5.8	6,485	6.0	6,503	5.9
경남	5,553	5.7	6,294	5.8	6,417	5.9
제주	1,937	2.0	2,028	1.9	1,857	1.7
소계	97,926	100.0	108,357	100.0	109,661	100.0

* 보건복지부.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2009, 2012, 2015

2) 조직 및 인적 자원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전체 사회복지사단체란 사회복지(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복지시설, 복지관, 법인/단체), 보건의료, 기타의 시설종별 분류들을 뜻함. 전체 사회복지사단체 대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비율 항목의 경우 평균 비율에서 각 2009년 6.52%, 2012년 9.24%, 2015 11.56%로 증가 추세를 보임.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11.56% 이상인 14.72%로 전체에서 5위를 차지함. 2015년 기준 충북의 사회복지사단체 종사자 4,552명 중 670명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성장을 저하로 저출산이 문제 시 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인력이 점점 더 부족해 질 것으로 전망 됨.

<표 3-4-1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전체 사회복지사단체 대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비율

	2009	2012	2015
서울	8.82	8.75	7.74
부산	8.99	22.17	30.80
대구	4.43	7.00	5.15
인천	6.06	5.28	5.40
광주	8.10	11.94	10.72
대전	9.72	11.45	5.30
울산	3.77	3.19	2.08
세종	0.00	0.00	28.40
경기	11.92	13.57	6.86
강원	8.40	6.64	8.23
충북	11.19	17.50	14.72
충남	6.95	10.23	15.92
전북	6.52	13.39	34.59
전남	1.07	2.52	4.85
경북	3.39	5.46	5.04
경남	3.57	8.42	9.40
제주	1.42	0.34	1.27
소계	104.33	147.87	196.48

5. 사회복지 재정

1) 국가의 사회복지비 지출

(1) 국가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

- 사회복지·보건 지출이 국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의 사회보장재정 규모를 파악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임.
- 국가란 행정주체로서의 국가를 의미하며 국가재정은 중앙부처 소관의 예산회계(일반회계+특별회계)와 기금회계를 포괄함. 한편, 예산과 결산상 재정규모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바, 이하는 국회 확정 예산을 기준으로 함(보건복지데이터포털 지표설명 참조).
- 2015년도 국회 확정 본예산 상 사회복지·보건 지출은 115.7조 원으로 국가 총지출의 30.8%를 차지함. 2009년 정부 총지출은 2009년에 302조 원 수준에서 2015년 375조 원으로 1.2배 성장하였고, 사회복지·보건 지출은 2009년 80조 원에서 2015년 116조 원으로 1.5배 커졌으며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 보다 약 1.5배 빠른 7.7%에 이룸. 이와 같은 급격한 성장세는 재정여건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속성을 지닌 법정의무지출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보건 재정사업의 특성에 기인함. 특히 4대 공적연금과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하여 2014년 새롭게 도입된 기초연금과 같은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대표적인 법정의무지출임.
- 사회복지·보건 내에서도 정책영역별 재정규모나 증가 추세에 있어 편차가 존재하는데, 재정규모로는 단연 공적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5년 기준 39조 6,612억 원으로 전체 사회복지·보건 지출의 34.3%에 이른다. 한편, 노인·청소년 부문과 보육·여성·가족부문의 경우 2015년 현재 전체 사회복지·보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8%와 4.7%로 주택(15.9%)이나 노동(13.4%)부문보다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2008년 이후 연평균 각각 22.3%와

18.3%씩 증가하여 가장 빠른 예산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동 부문의 급격한
 성장은 특히 기초연금도입과 무상보육 확대에 기인함(보건복지부데이터포털).

<표 3-5-1> 국가 사회복지분야 지출 비중 (단위: 조원, 억 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회복지보건[A]	80	81	86	93	99	106	116
국가총지출[B]	302	293	309	325	349	356	375
비중[A/B]	27	28	28	29	29	30	31
[사회복지, 억원]	734,196	739,162	788,926	847,715	904,712	972,051	1,052,815
기초생활보장	79,803	72,937	75,240	79,100	87,761	88,310	94,773
취약계층지원	24,055	15,212	13,427	13,946	16,849	17,987	23,688
공적연금	238,197	259,856	281,833	312,678	331,382	364,031	396,612
보육 가족 여성	19,567	23,694	28,759	33,847	45,431	57,156	54,278
노인 청소년	32,836	36,630	38,759	40,510	45,034	65,619	90,362
노동	146,846	122,935	126,180	131,242	140,362	144,588	155,162
보훈	33,597	36,094	38,737	40,541	43,152	44,576	46,376
주택	152,883	167,162	180,536	190,062	187,679	182,343	183,867
사회복지일반	6,412	4,642	5,455	5,789	7,062	7,440	7,697

측정산식 :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 ÷ (국가 총 지출) × 100

주: 2009년 및 2013년 추경기준. 2015년 본예산기준이며, 괄호 안의 수치는 추경예산
 규모임. data.kihasa.re.kr.

(2)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 현황

- 사회복지 분야 주요 예산사업 즉,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정책사업의 재정규모
 로 국가-지방체간 분담수준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지표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
 당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한 금액임.
- 2015년도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비 총액은 28조 7,762억 원임. 이들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국비-지방비 매칭방식으로 운용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임.

- 2015년 현재 국가는 사업비 총액의 73.7%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26.3%를 부담하고 있음. 세부 사업별로 기초연금급여가 총사업비의 3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의료급여('14년 20.7%→'15년 20.5%), 기초생활급여('14년 15%→'15년 18.6%), 영유아보육료('14년 30%→'15년 16.1%), 가정양육수당('14년 6.7%→ '15년 6.0%), 장애인연금('14년 2.5%→'15년 2.9%), 장애수당('14년 0.6%→'15년 0.7%) 순으로 나타남.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 급여 체계 개편, 기초연금제도 전면 시행 및 만 3세아 이상 보육료지원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게 되는 등의 변화에 따라 예산규모 순위가 전년에 비해 크게 달라짐(data.kihasa.re.kr. 설명 참고).
- 2015년 보육료지원 사업 이관과 기초연금의 확대 시행, 맞춤형 개별 급여 체계 개편 등으로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 총사업비의 국가분담률은 2014년 대비 9.6% 높게 나타나지만, 보육료지원 지방비에 누리보육비를 포함할 경우 국가분담률은 64.9%로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표 3-5-2>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 현황 (2015)

	계(A)	국비(B)	지방비	국가분담률(A/B)
합계	287,762	212,197	75,565	73.70
기초생활보장급여	53,488	42,790	10,698	80.00
의료급여	58,875	45,334	13,541	77.00
장애인연금급여	8,379	5,614	2,765	67.00
장애수당급여	1,960	1,313	647	67.00
기초연금급여	101,522	75,634	25,888	74.50
영유아보육료	46,403	30,494	15,909	65.70
가정양육수당	17,135	11,018	6,117	64.30

- 1) 지출 규모는 예산 기준임.
 - 2)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은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애급여이며,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지방비에는 지방교육 재정으로 지원되는 누리보육(만3세아 이상 보육료 지원과 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유아학비)) 예산은 제외됨.
- 자료 :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2015.12.31.기준(2015.09.15.제공). data.kihasa.re.kr.

2) 각 시도별 지방비 재정

(1) 시도별 지방세 비중

○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세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61,725,0413백만 원으로 경기도가 15,216,198백만 원, 서울시가 14,502,519백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충북의 경우 1,684,169백만 원으로 전국에서 10번째로 나타남.

<표 3-5-3> 시도별 지방세 비중

(단위: 백만 원)

시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순위
총계	45,167,790	49,159,805	52,300,144	53,938,064	53,778,881	61,725,013	
서울	11,922,706	12,074,840	12,913,964	13,436,966	12,980,600	14,502,519	2
지방계	-	-	-	-	40,798,280	47,222,494	
부산	2,739,707	3,062,239	3,352,687	3,386,162	3,401,445	3,973,205	4
대구	1,573,443	1,818,648	1,924,374	2,073,421	2,148,115	2,591,818	8
인천	2,360,091	2,428,823	2,790,176	2,754,954	2,855,673	3,220,968	5
광주	976,111	1,077,114	1,137,184	1,202,985	1,220,622	1,428,496	15
대전	1,000,099	1,162,679	1,332,664	1,320,566	1,258,482	1,549,395	13
울산	1,060,227	1,230,508	1,375,029	1,493,288	1,413,522	1,611,003	12
세종	-	-	-	119,099	216,598	386,816	17
경기	11,905,905	12,876,723	12,957,501	13,288,767	13,301,235	15,216,198	1
강원	1,065,003	1,222,509	1,272,268	1,344,637	1,330,566	1,473,843	14
충북	1,094,931	1,310,314	1,371,252	1,443,528	1,431,512	1,684,169	10
충남	1,793,495	2,097,037	2,297,542	2,307,243	2,226,001	2,624,962	7
전북	1,091,309	1,287,562	1,407,180	1,456,057	1,457,454	1,641,746	11
전남	1,288,287	1,434,292	1,580,286	1,622,293	1,599,464	1,751,096	9
경북	2,001,834	2,220,366	2,397,531	2,499,249	2,563,701	2,963,881	6
경남	2,880,091	3,334,664	3,609,075	3,504,746	3,605,279	4,195,428	3
제주	414,551	521,487	581,431	684,103	768,612	909,470	16

통계청, e-나라지표.

(2) 시도별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 시도별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은 2014년 전국적으로 30.64%에 달함. 이는 2009년 24.96%에서 1.22배 증가한 것으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지역별로는 광주, 대전의 경우 각각 41.39%, 41.46%를 차지하여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대구도 39.41%, 부산 38.52%, 서울 37.96% 등으로 광역시의 복지예산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충북의 경우 2009년 23.06%에서 2014년 26.53%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표 3-5-4>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서울	25.28	26.42	29.10	31.65	36.30	37.96
부산	33.90	33.16	33.08	35.11	35.42	38.52
대구	34.37	34.89	35.90	35.37	35.30	39.41
인천	26.84	29.62	30.79	32.16	31.92	36.43
광주	36.97	38.62	36.88	38.24	39.11	41.39
대전	32.94	34.34	34.94	36.53	38.76	41.46
울산	23.18	24.66	24.56	25.16	28.44	29.89
세종	-	-	-	18.89	20.34	17.02
경기	22.15	23.60	24.26	26.07	31.02	33.45
강원	19.07	19.07	19.50	19.49	19.92	22.57
충북	23.06	22.55	22.89	23.28	24.22	26.53
충남	21.12	20.35	20.56	19.82	22.54	24.12
전북	24.31	24.27	23.02	23.12	24.31	26.34
전남	19.06	19.18	18.75	17.57	20.20	22.54
경북	21.35	21.15	20.39	19.92	21.58	23.37
경남	21.65	22.06	21.77	22.36	24.27	26.57
제주	14.07	13.90	12.41	11.67	13.35	14.93
전국	24.96	25.49	25.55	25.67	28.21	30.64

자료 : data.kihasa.re.kr.

(3) 영역별 보조사업 비율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세출 사업에서 보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는 지자체 사회보장관련 사업의 유형과 지출구조를 파악할 수 있음.
- 2015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평균 보조사업 비중은 90.5%로 전 분야 평균 52.4%의 1.7배에 달함. 사회복지·보건 정책영역별로는 기초생활보장(98.4%), 보육·가족 및 여성(94.4%), 노인·청소년(91.4%), 취약계층지원(87.7%), 사회복지일반(73.0%), 주택(70.4%), 노동(60.9%), 보훈(27.3%) 순으로 보조사업 비중이 높았음.

<표 3-5-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 비중(2015) (단위:억원, %)

	보조사업 (A)	자체사업 (B)	보조사업비 중 [A/(A+B)]	2014년도보조 사업비 중
지자체 예산	727,032	660,177	52	53
사회복지·보건	421,634	44,012	91	90
사회복지	402,611	36,289	92	92
기초생활보장	103,371	1,676	98	98
취약계층지원	50,307	7,082	88	87
보육·가족·여성	109,324	6,484	94	95
노인·청소년	122,958	11,599	91	90
노동	4,116	2,648	61	70
보훈	758	2,023	27	26
주택	8,507	3,569	70	69
사회복지일반	3,268	1,207	73	73

측정산식[(보조사업비 규모) ÷ (지자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세출)] ×100

주: 행정운영경비나 재무활동 등이 제외됨에 따라 T.11-02의 분야 부문별 예산규모와 차이가 있음.

자료: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구, 예산개요)

3) 지역별 사회복지비 지출

(1) 지역별 사회복지비 지출(결산) 비율

○ 지역별로 세출결산액 중 사회복지분야 결산액 비중을 살펴보면, 충북은 28.87%로 낮았으며 2012년 대비 증가율도 충북은 4.43% 정도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에 그침. 지출비율은 낮지만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제주로 8.27% 서울 7.58%, 전남 7.39%, 경기 7.32% 순으로 나타남.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부분의 합계를 말함.

<표 3-5-6> 지역별 사회복지비 지출(결산) 비율

	2012			2015			2015년 - 2012년 비율
	사회복지분야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사회복지비 비율 (A/B)x100	사회복지분야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사회복지비 비율 (A/B)x100	
서울	7,430,426	23,126,488	32.13	11,526,120	29,026,230	39.71	7.58
부산	3,366,251	9,467,311	35.56	5,004,659	12,159,758	41.16	5.6
대구	2,254,881	6,188,887	36.43	3,331,946	8,146,928	40.90	4.47
인천	2,437,422	7,451,677	32.71	3,637,542	9,611,300	37.85	5.14
광주	1,616,689	4,143,828	39.01	2,315,378	5,361,790	43.18	4.17
대전	1,456,657	3,794,867	38.38	2,079,347	4,888,825	42.53	4.15
울산	841,571	3,134,226	26.85	1,291,459	3,822,915	33.78	6.93
세종	37,819	176,554	21.42	156,070	792,202	19.70	-1.72
경기	8,399,588	31,669,694	26.52	13,100,879	38,718,353	33.84	7.32
강원	1,782,383	8,813,863	20.22	2,560,550	10,540,455	24.29	4.07
충북	1,738,436	7,114,160	24.44	2,504,720	8,674,456	28.87	4.43
충남	2,119,600	10,263,619	20.65	3,084,833	12,064,209	25.57	4.92
전북	2,411,151	10,207,351	23.62	3,413,426	11,739,357	29.08	5.46
전남	2,527,510	13,806,477	18.31	3,717,451	14,464,292	25.70	7.39
경북	3,111,595	14,994,239	20.75	4,463,146	17,504,304	25.50	4.75
경남	3,299,095	14,333,092	23.02	4,702,140	16,445,012	28.59	5.57
제주	307,415	2,537,753	12.11	657,609	3,227,408	20.38	8.27

자료 : data.kihasa.re.kr.

(2) 지역별 지방보조금 비율

-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의 합계를 말하는 지방보조금 비율을 살펴봄. 국가의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의 비율은 2012년까지 민간보조금비율로 산출되었으나 2013년부터 사회복지보조와 민간자본보조를 지방보조금 비율로 통합하여 산출하고 있음.
- 2015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세출예산 중 지방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15.1%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광주가 11.67%, 인천 9.68%, 서울 9.63%, 대구 9.58%, 충북 9.57% 등으로 충북이 비교적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5-7> 지방보조금 비율

(단위 : 백만 원, %)

	2009			2012			2015		
	지방 보조금 (A)	세출 결산액 (B)	비율 (A/B)x 100	지방 보조금 (A)	세출 결산액 (B)	비율 (A/B)x 100	지방 보조금 (A)	세출 결산액 (B)	비율 (A/B)x 100
서울	630,696	24,811,744	2.54	257,066	23,126,488	1.11	2,795,416	29,026,230	9.63
부산	422,788	8,703,950	4.86	179,205	9,467,311	1.89	785,531	12,159,758	6.46
대구	402,368	5,684,712	7.08	167,978	6,188,887	2.71	780,720	8,146,928	9.58
인천	433,671	7,385,267	5.87	114,304	7,451,677	1.53	930,016	9,611,300	9.68
광주	286,108	3,718,348	7.69	96,880	4,143,828	2.34	625,509	5,361,790	11.67
대전	173,406	3,499,014	4.96	64,281	3,794,867	1.69	388,583	4,888,825	7.95
울산	167,473	2,845,863	5.88	66,049	3,134,226	2.11	240,569	3,822,915	6.29
세종				5,193	176,554	2.94	69,401	792,202	8.76
경기	1,422,295	29,044,492	4.90	725,784	31,669,694	2.29	2,902,588	38,718,353	7.50
강원	412,682	9,006,335	4.58	202,036	8,813,863	2.29	931,629	10,540,455	8.84
충북	343,190	6,906,419	4.97	139,570	7,114,160	1.96	829,805	8,674,456	9.57
충남	426,347	9,719,943	4.39	201,253	10,263,619	1.96	988,265	12,064,209	8.19
전북	398,192	9,566,931	4.16	218,376	10,207,351	2.14	1,096,153	11,739,357	9.34
전남	550,819	13,083,269	4.21	348,196	13,806,477	2.52	1,248,871	14,464,292	8.63
경북	479,015	13,863,271	3.46	347,007	14,994,239	2.31	1,503,160	17,504,304	8.59
경남	586,312	14,137,148	4.15	273,751	14,333,092	1.91	1,153,797	16,445,012	7.02
제주	287,762	2,568,306	11.20	108,261	2,537,753	4.27	487,306	3,227,408	15.10

자료 : data.kihasa.re.kr.

4. 지역별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 지출의 관계

-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별 자체수입이 자치단체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84.7%로 가장 높고, 울산이 72.2%, 경기도 67.4%, 인천이 67.0%, 부산 60.1% 등으로 나타남. 충북은 35.2%로 전남 23.8%, 강원 27.1%, 전북 29.7%, 경북 33.3%보다 약간 높지만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계수는 .601(* $p < 0.0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도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데 이것은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일수록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복지비 지출도 낮은 것을 뜻함. 즉,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사회복지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훨씬 크게 안고 있는 것이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의 경우도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과 관련한 이러한 해석은 2012년보다 설명력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남. SPSS를 통한 해당연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계수 값이 2012년은 .521(* $p < 0.05$)이었으나 2015년 .601로 높아져 사회복지비 지출과 재정자립도의 유의미한 관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

<표 3-5-8> 시도별 재정자립도

(단위: %)

시도별	2009	2010	2012	2015	2016
전국	53.6	52.2	52.3	50.6	52.5
서울	92.0	85.8	90.2	84.3	84.7
부산	58.3	57.6	57.4	56.8	60.1
대구	54.7	56.3	52.8	53.1	57.1
인천	74.2	70.4	71.0	64.4	67.0
광주	48.3	47.5	46.6	49.3	51.5
대전	59.3	56.3	58.3	54.9	55.0
울산	67.7	67.2	71.2	72.0	72.2
세종	-	-	-	54.8	59.0
경기	75.9	72.8	72.6	66.6	67.4
강원	28.0	27.1	26.9	25.9	27.1
충북	33.3	33.7	34.2	34.8	35.2
충남	36.6	36.6	35.5	35.2	38.7
전북	23.6	24.6	26.0	27.6	29.7
전남	19.4	20.6	21.4	22.8	23.8
경북	27.7	29.3	28.3	30.0	33.3
경남	39.4	42.9	43.3	43.3	43.5
제주	25.2	26.1	28.5	36.4	38.2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IV. 결론

- 이상에서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수준을 타 시도와 비교해 보았고 요약한 결과를 중심으로 종합하여 논의를 제시함.

1. 요약

□ 노인복지

- 시설환경은 충북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시설 수 평균치 기준 전국에서 노인 10만 명 당 노인양로시설 2위, 노인공동생활가정 1위, 노인복지주택 9위, 노인요양시설 4위, 노인공동요양생활가정 1위, 노인복지관 3위, 경로당 4위, 노인교실 17위로 나타남. 노인시설은 탈시설화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생활가정, 요양시설, 복지관 등이 증가되고 있지만 질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재가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시설은 미비한 편임.
- 노인 10만 명 당 방문요양서비스 11위, 주야보호서비스 10위, 단기보호서비스 8위, 방문목욕서비스 14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8위,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 수 2위, 전체 사회봉사단체 대비 노인복지시설 비율 12위로 나타남. 이에, 충북의 재가노인서비스 운영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며, 일자리지원기관이 많은 것은 재가노인소득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사료됨.
- 충북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종사자 평균치 기준 전국에서 노인 10만 명 당 노인양로시설 3위, 노인공동생활가정 1위, 노인복지주택 9위, 노인요양시설 5위, 노인공동요양생활가정 1위, 노인복지관 3위로 나타남. 또한, 방문요양서비스 13위, 주야보호서비스 10위, 단기보호서비스 9위, 방문목욕서비스 11위,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7위,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종사자 수는 1위로 나타남. 전체 사회복지사 대비 재가부분 사회복지사 비율 16위, 전체 사회 봉사단체 대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비율 12위로 나타남. 이상에서 시설종사자는 전국에 비해서 높은 편에 속하고 재가노인서비스 이용시설 종사자는 낮은 편이어서 재가노인을 위한 이용시설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확충해야할 것임.

□ 장애인복지

- 2014년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은 모두 1,457개소가 있으며, 이 중 58.3%인 850개소가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임.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33개소, 충북은 12개소로 전국의 5.2%를 차지함.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은 전국적으로 10개소가 운영 중이나 충북은 운영 중인 시설이 없음. 장애인단기 거주시설은 2015년 3개소임. 공동생활가정은 전국적으로 717개소가 운영 중이며 충북은 이의 4.7%인 34개소 운영 중임.
- 충북은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 12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5개소, 장애인 체육시설은 1개소가 운영 중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군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는 전국적으로 193개소가 운영 중으로 청각장애인 974명 당 1개소로 비교적 전국평균보다 낮음.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의 충북이용자는 1,654명으로 이용금액은 1,727,417천 원으로 나타남. 발달재활서비스는 2015년 1,745명이 이용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전국적으로 560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충북은 22개소로 전국적으로 3.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광역단위에 1개소씩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전국에 18개소가 운영 중이며 충북은 1개소 운영되고 있음.
- 장애인 특수학교는 전국에 167개소가 운영 중임. 충북은 9개소가 운영 중이며 특수학교를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1,332명으로 전체의 5.2%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냄. 특수학급 학생은 1,855명임.
- 2014년 기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91%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 기업은 2.45%임. 적용 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 근로자 수 비율은 충북의 경우 전체 고용률은 2.86으로 전국 평균 2.53보다는 약간 높음.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특수교통수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률은 감소하고 있음. 충북도 2009년 36대가 운영되었으나 2011년 13대, 2013년 7대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남. 대신, 2014년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충북은 97.1%로 나타났으나 바우처 택시는 전혀 운영되지 않음.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충북이 60.3%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음.

- 일선에서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009년 10,334명에서 2012년 12,907명, 2015년 16,269명으로 크게 증가함. 충청북도의 경우 2009년 399명이었으나 2012년은 506명, 2014년은 601명으로 증가함.

□ 여성복지

- 여성빈곤의 척도가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은 충북은 56.0%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9위로 나타남. 노후 준비와 관련된 공적연금체계에 가입한 여성의 비율은 충북이 42.1%로 나타나 역시 9위를 차지하고 있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3.6%로 3위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여성과 남성의 성별임금격차도 가장 심한 곳으로 충북은 62.7%로 3위를 차지함.
- 안전과 관련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여성피해자 비율은 충북이 81.7%, 16위로 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전국 4.5%이며 충북은 이보다 약간 높은 4.7%로 나타남.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4개소가 운영 중이며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가 2015년 8,736명으로 69.1%가 증가하여 전국적인 증가추세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이들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12개소가 운영 중임. 결혼이민자 및 인지, 귀화자를 대상으로 1개소 당 728명으로 전국 평균 1,408명에 비해 낮게 나타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2015년 5개소로 증가했으나 2016년 초 미혼모시설이 운영난으로 폐쇄되면서 보고서 발행일 기준으로 2016년 현재는 4개소가 운영 중임.
- 여성의 성평등 인식 등과 관련하여 민선 4기~6기의 광역의회 여성의원 활동 비율은 전국 평균 14.3%이지만 충북은 12.9%, 기초의회 여성의원도 전국 평균 25.3%이지만 충북은 21.4%로 낮게 나타남.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전국적으로 평균 11.6%지만 충북은 7.2%로 역시 낮게 나타남.

□ 아동복지

- 충북은 2009년, 2012년, 2015년 시설 수 평균치 기준 전국에서 아동양육시설 수 11위, 아동보호치료시설 수 4위, 자립지원시설 수 3위, 종합시설 수 3위,

아동일시보호시설 수 9위, 아동상담소 시설 수 13위, 아동전용시설 수 3위, 개인양육 시설 수 7위로 나타남.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의 경우 8위로 나타남.

-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종합시설 등은 전국 상위권으로 볼 수 있으나, 양육시설이나 일시보호시설, 상담소 시설 등은 전국 최하위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일시보호시설이나 상담소 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양육시설로 가기 전 단계에서의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

2. 논의 및 제한점

1) 논의

-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수준을 분석하였으며 자료는 국가의 공급자 중심으로 정리한 통계자료이므로 사회복지수준의 평가에서 무엇을 측정해야하는가에 대한 관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며 즉, 사회복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가는 제외되었음.
- 사회복지수준 분석은 법령에 따른 수량중심적인 통계자료를 통하여 접근을 시도하였으므로 이용자 중심의 질적 수준을 분석하기 어려웠음.
-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수준을 검토한 결과, 단일측정 항목에 대한 시·도간 비교에서 순위를 평가할 수 있지만 복합측정 항목에 대해서는 단순한 합계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판단해야할 것임.
-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감소추세에 놓고, 보다 질적인 측면을 강조한 서비스의 증가추세에 따라 종사자의 역할을 기대해야할 것이며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재가이용자의 활용을 더욱 확대해야할 것임.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의 증가(강태현, 2016), 장애인의 자기선택과 자기결정에 따라 개별계획을 지원하는 개별유연화(personalization) 정책(김영대·나동석, 2016), 여성의 양성평등을 중심으로 여성의 빈곤문제, 저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성인지적 사회안전망(박영란, 2007),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으로

부터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강구하여야할 것임(곽민희, 2016).

2) 제한점

- 본 연구에서의 사회복지수준의 분석은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공급자 중심으로 분석하게 됨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수준은 파악하기 어려움.
- 충청북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도농과 시군 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고, 특히 도청인 청주 지역에 집중화되고 청주의 지역에는 부족한 상황을 좀 더 깊이 분석하지 못하였음.

3. 제언: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방향제시

- 도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타 시도와 비교하여 현재의 수준을 파악함에 따라 앞으로의 도민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할 것임.
- 복지대상자의 욕구를 재조명하여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할 것임. 대상별로 나누어 향후의 변화를 살펴보고 욕구발생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임.
-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수준은 평균수준에 위상을 갖는다고 생각하며 다음으로 충청북도 시·군 간의 수준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됨. 복지대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환경을 보완하여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해야할 것임.
- 민간에서 해야 할 부분으로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현재 수준의 시설환경과 인적자원으로 만족스러운 효율과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부문별로 사례관리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것임.
- 미래지향적으로 사회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민이 중심으로 자치권을 형성해야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할 것이며, 생활화하는 문화중심으로 복지사회를 이끌어야할 것임.

참 고 문 헌

- 강태헌(2016), 주요 선진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2016-38: 1~22, 한국은행.
- 곽민희(2016), 국제가족법상 아동의 복리, 법학논총 23(2): 301~338.
- 김미란(2013),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2조의 한국사회의 적용과 한계연구 : 아동의사표명권을 중심으로, 경남과학기술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 김영대·나동석(2016), 재가중증장애인의 장애정체감과 자립생활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32: 115~139.
- 박영란(2007),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와 여성, 젠더리뷰, 5: 24~32
- 여성가족부(2015),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우병창(2011),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우리법의 정비", 안암법학, 34: 477~522.
- 이수연(2016), 제6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주요 의제 및 논의사항, 젠더리뷰, 41: 72~75.
- 정경희(2012),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도선(2011), UN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논문.
- 정한울(2016),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2015),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충북지역 조례 개정방향 연구.

인터넷 자료 출처

국토해양부	www.molit.go.kr
교육과학기술부	www.moe.go.kr
보건복지부 데이터포털	data.kihasa.re.kr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stat.mohw.go.kr
보건복지부	www.hohw.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사회보장정보원	www.ssis.or.kr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kostat.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www.kwdi.re.k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www.nypi.re.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www.moi.go.kr

2016 충북사회복지 조사연구

- 인쇄 일 : 2016년 12월 23일
 - 발행 일 : 2016년 12월 23일
 - 발행 인 : 심 의 보
 - 발행 처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 전화/팩스 : T. 043)234-0840 F. 043)234-0849
 - 홈페이지 : www.cwin.or.kr
- * 판권소유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서면 동의가 없이는 복제나 전제가 불가능함
-

2016. 충북사회복지 조사연구 보고서
충청북도 사회복지수준 분석

w w w . c w i n . o r . k 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